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번역본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의결 2023. 12. 21.

목 차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다음 문단 이후

목적	1
적용범위	5
개념적 기반	10
공정한 표시	11
중요성	17
보고기업	20
연계된 정보	21
핵심요소	25
거버넌스	26
전략	28
위험관리	43
지표 및 목표	45
일반 요구사항	54
지침의 원천	54
공시의 위치	60
보고시기	64
비교정보	70
준수 문구	72
판단, 불확실성 및 오류	74
판단	74
측정불확실성	77
오류	83

목 차

부록

A. 용어의 정의

B. 적용지침

C. 지침의 원천

D.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E.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23년 6월에 발표한 IFRS S1에 대한 ISSB의 승인

※ 부속지침 및 결론도출근거는 IFRS S1 기준서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된다.

[부속지침]

예시지침 (IG1-IG27)

예시사례 (IE1-IE15)

[결론도출근거]

IFRS S1의 결론도출근거 (BC1-BC178)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은 문단 1~86과 부록 A~E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굵게 표시된 문단은 주요 원칙을 설명한다. 부록 A에서 정의한 용어가 이 기준서에서 처음 등장할 때에는 기울임꼴로 나타내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꼴로 나타낸다. 기타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의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본문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목적

- 1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의 목적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가 기업에 대한 자원 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¹⁾
- 2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는 주요이용자에게 유용하다. 이는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의 능력이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기업과 기업의 이해관계자, 사회, 경제 및 자연환경 간의 상호작용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기업은 자원 및 관계와 함께, 기업이 그 안에서 운영되는 상호의존적인 시스템을 형성한다. 그러한 자원 및 관계에 대한 기업의 의존성과 자원 및 관계에 대한 기업의 임팩트는 기업에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발생시킨다.
- 3 이 기준서는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 자금 조달 접근성 또는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이러한 위험 및 기회를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라고 통칭한다.

1) 이 기준서 전반에서 '주요이용자'와 '이용자'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며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

- 4 이 기준서는 또한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어떻게 작성하고 보고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는 주요이용자가 기업에 대한 자원 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유용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그러한 공시의 내용과 표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적용범위

- 5 이 기준서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고 보고할 때 적용한다.
- 6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 7 다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는 기업이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한다.
- 8 기업은 기업의 관련 일반목적재무제표('재무제표'로 통칭함)가 IFRS 회계기준으로 작성되는지 또는 다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따라 작성되는지와 관계없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9 이 기준서는 공기업을 포함한 영리기업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한다.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에서 비영리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정보의 특정 항목에 대한 설명에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개념적 기반

- 10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는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특성에 해당한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능한 경우 그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보장된다. 이는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보강적 질적특성이다(부록 D 참조).

공정한 표시

- 11 전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 12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문단 B1~B12를 적용한다.
- 13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이 기준서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의 공시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표현충실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은 그러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정확하게 서술한다.
- 14 중요성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맥락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다에 근거한 해당 기업의 특유한 면에 대한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 15 또한 공정한 표시를 위해 기업에 다음을 요구한다.
 - (1)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능한 정보를 공시한다.

(2)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구체적으로 적용가능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더라도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친 기업의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들이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16 필요에 따라 추가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포함(문단 15(2)참조)하여,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공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본다.

중요성

17 기업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한다.

18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재무제표 및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포함)에 해당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근거로 내리는 주요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맥락에서 중요하다.

19 중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공시하기 위해 기업은 문단 B13~B37을 적용한다.

보고기업

20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보고기업은 관련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해야 한다(문단 B38 참조).

연계된 정보

- 21 기업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연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 (1) 정보가 관련된 항목 간의 연계(예: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연계)
 - (2) 기업이 제공하는 공시 간의 연계
 - (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내의 연계(예: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공시 간의 연계)
 - (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기업이 발행한 다른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예: 기업의 관련 재무제표) 간의 연계(문단 B39~B44 참조)
- 22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관련된 재무제표를 식별한다.
- 23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할 때 사용한 데이터 및 가정은, IFRS 회계기준이나 적용가능한 다른 GAAP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기업의 관련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및 가정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관되어야 한다(문단 B42 참조).
- 24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측정 단위로서 통화가 명시된 경우, 기업은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를 사용한다.

핵심요소

- 25 다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특정 상황에서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한,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 (1) 거버넌스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문단 26~27 참조)
- (2) 전략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문단 28~42 참조)
- (3) 위험관리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문단 43~44 참조)
- (4) 지표 및 목표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기업이 설정한 모든 목표, 또는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모든 목표에 대한 진척도를 포함)(문단 45~53 참조)

거버넌스

- 26 거버넌스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목적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7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 (1)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들)(이사회, 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기구를 포함할 수 있음) 또는 개인(들). 구체적으로 기업은 그 기구(들) 또는 개인(들)을 식별하고,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 (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책임이 해당 의사결정기구(들) 또는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기업의 운영규정(terms of reference), 위임권한(mandates), 직무기술서(role description), 그리고 기타 관련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나) 의사결정기구(들) 또는 개인(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을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량과 역량을 갖추었는지 또는 향후 개발될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 (다) 의사결정기구(들) 또는 개인(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안내받는지와 얼마나 자주 안내받는지
 - (라)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이 기업의 전략, 주요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 위험관리 프로세스 및 관련 정책을 감독할 때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고려하는지[의사결정기구(들) 또는 개인(들)이 그러한 위험 및 기회와 연관된 절충(trade-off)을 고려했는지 포함]
 - (마) 의사결정기구(들) 또는 개인(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목표의 설정을 어떻게 감독하는지와 그러한 목표를 향한 진척도를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문단 51 참조)(관련 성과지표가 보상정책에 포함되는지와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포함)
- (2)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상의 경영진의 역할. 이는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 (가) 그러한 역할이 특정 경영진 수준의 직책이나 경영진 수준의 위원회에 위임되는지와 그러한 직책이나 위원회가 어떻게 감독되는지
 - (나) 경영진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통제 및 절차를 사용하는지와, 이 경우에 이러한 통제 및 절차가 다른 내부 기능과 어떻게 통합되는지

전략

28 전략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목적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9 구체적으로 기업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 (1)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문단 30~31 참조)
- (2) 그러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영향 및 예상 영향(문단 32 참조)
- (3) 그러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전략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문단 33 참조)
- (4) 그러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의 기업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과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예상 영향. 이때 그러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재무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고려한다(문단 34~40 참조).
- (5) 그러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 대한 기업 전략과 사업모형의 회복력(문단 41~42 참조)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30 기업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다음을 수행한다.

- (1)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기술한다.

- (2) 각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범위(단기, 중기 또는 장기)를 명시한다.
- (3) 기업이 '단기', '중기' 및 '장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가 기업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계획기간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한다.

31 단기, 중기 및 장기의 기간범위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고, 산업별 특징을 포함한 여러 요소(예: 현금흐름, 투자 및 사업주기, 전략적인 의사결정 및 자본할당 계획을 위해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통용되는 계획기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해당 산업의 기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기간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업모형과 가치사슬

32 기업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영향 및 예상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 (1)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영향 및 예상 영향에 대한 기술
- (2) 기업의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된 부분(예: 지리적 영역, 시설 및 자산의 유형)에 대한 기술

전략 및 의사결정

33 기업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록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 (1) 기업의 전략 및 의사결정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기업이 어떻게 대응했고 대응할 계획인지
- (2) 과거 보고기간에 공시한 계획의 진척도(양적 및 질적 정보 포함)
- (3) 기업이 고려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절충(예: 새로운 사업장의 위치를 결정할 때, 해당 사업장의 환경적 임팩트와 지역사회에서 창출할 고용 기회를 고려하였을 수 있음)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34 기업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 (1)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의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현재 재무적 영향)
- (2)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예상 재무적 영향). 이때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재무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려한다.

35 구체적으로 기업은 다음에 관한 양적 및 질적 정보를 공시한다.

- (1)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의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 (2) 문단 35(1)에서 식별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중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관련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이 있는 위험 및 기회

(3)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감안할 때, 기업이 자신의 재무상태가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기에는 다음을 고려한다.

(가) 투자 및 처분 계획[예: 자본적 지출, 주요 인수 및 매각, 합작투자(joint venture), 사업전환, 혁신, 새로운 사업 분야 및 퇴역자산(asset retirements) 등에 관한 계획]. 여기에는 계약상 약정되지 않은 계획도 포함된다.

(나)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계획된 자금조달 원천

(4)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감안할 때, 기업은 자신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이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36 양적 정보를 제공할 때, 기업은 단일값 또는 범위로 공시할 수 있다.

37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공시를 작성할 때 다음을 수행한다.

- (1) 기업은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한다(문단 B8~B10 참조).
- (2) 기업이 그러한 공시를 작성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기량, 역량 및 자원의 수준에 상응하는 접근법을 사용한다.

38 기업이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현재 재무적 영향이나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1) 그러한 영향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2) 그러한 영향을 추정하는 데 수반되는 측정불확실성의 수준이 너무 높아, 산출되는 양적 정보가 유용하지 않을 경우(문단 77~82 참조)

- 39 또한 기업이 양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량, 역량 및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40 문단 38~39에서 정하는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현재 재무적 영향이나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기업은 다음을 수행한다.
- (1) 양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 (2) 해당 재무적 영향에 대한 질적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해당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로 인해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관련 재무제표 내의 계정과목, 총계 및 소계의 식별을 포함한다.
 - (3) 기업은 해당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와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이나 기회 그리고 기타 요인을 결합한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한다. 단, 결합된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가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복력

- 41 기업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기업은 자신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관련하여 기업 전략과 사업모형의 회복력에 대한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적용가능한 경우)를 공시하며, 여기에는 평가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와 그 기간범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양적 정보를 제공할 때, 기업은 단일값 또는 범위를 공시할 수 있다.

- 42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 대한 기업의 회복력에 대해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유형과 그러한 공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한지 여부를 포함)가 다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명시될 수 있다.

위험관리

- 43 위험관리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목적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다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1)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여기에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통합되고 작용하고 있는지와 그 방식을 포함한다.
- (2)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 프로파일과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평가한다.

- 44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 (1)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 및 관련 정책. 이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가) 기업이 사용하는 투입변수 및 매개변수(예: 프로세스에서 다뤄지는 데이터 원천 및 사업 범위에 대한 정보)
 - (나)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의 식별을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는지와 어떻게 사용하는지
 - (다) 기업이 그러한 위험의 성격, 발생가능성 및 영향의 크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하는지(예: 질적 요인, 양적 임계치 또는 그 밖의 판단기준을 고려하는지)
 - (라) 기업이 다른 유형의 위험과 비교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우선시하는지와 어떻게 우선시하는지
 - (마)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

- (바) 기업이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직전 보고기간과 비교하여 변경되었는지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 (2)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
- (3)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가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통합되고 작용하는 범위와 방식

지표 및 목표

- 45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목적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업이 설정한 모든 목표, 그리고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모든 목표에 대한 진척도를 포함한다.
- 46 기업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각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적용가능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지표
 - (2) 기업이 다음을 측정 및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
 - (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
 - (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와 관련한 기업의 성과(기업이 설정한 모든 목표, 그리고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모든 목표에 대한 진척도를 포함)
- 47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적용하는 구체적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없을 때, 적용가능한 지표를 식별하기 위해 문단 57~58을 적용한다.

- 48 문단 45~46을 적용하는 기업이 공시하는 지표에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는 사업모형, 활동, 또는 그 외의 공통적인 특성과 연관된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49 기업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외의 원천에서 가져온 지표를 공시하는 경우, 그 원천과 지표가 무엇인지를 식별한다.
- 50 기업이 지표를 개발한 경우,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 (1) 지표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여기에는 지표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외의 원천에서 가져온 지표를 조정하여 도출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원천이 무엇인지, 기업이 공시한 지표가 해당 원천에 명시된 지표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 (2) 지표가 절대 측정치, 다른 지표와 관련하여 표현된 측정치, 또는 질적 측정치[예: 빨간색(R), 황색(A), 녹색(G) 또는 RAG 상태]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 (3) 지표가 제삼자에 의해 검증되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기관인지
 - (4)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계산에 사용된 투입변수. 여기에는 사용된 방법의 한계와 설정된 유의적인 가정이 포함된다.
- 51 기업은 자신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진척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 그리고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모든 목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각 목표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 (1)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도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
 - (2) 기업이 설정한, 또는 충족해야 하는 구체적인 양적 또는 질적 목표
 - (3) 목표가 적용되는 기간

- (4) 진척도가 측정의 기준기간
- (5) 주요 단계(milestone) 및 중간 목표
- (6) 각 목표 대비 성과, 그리고 기업 성과의 추세나 변동 분석
- (7) 목표의 수정사항과 그러한 수정에 대한 설명

52 기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를 포함하여, 지표의 정의 및 산출방식은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어야 한다. 지표가 재정의되거나 대체되는 경우 기업은 문단 B52를 적용한다.

53 기업은 의미 있고 명확하며 정확한 명칭과 기술을 사용하여 지표 및 목표를 명명하고 정의한다.

일반 요구사항

지침의 원천(Sources of guidance)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

54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 기업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한다.

55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외에도 다음을 고려한다.

- (1) 기업은 SASB 기준의 공시 주제를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기업은 SASB 기준의 공시 주제를 기업의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릴 수도 있다.
- (2) 기업은 다음을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 (가) ‘물 관련 공시를 위한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 및 ‘생물다양성 관련 공시를 위한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으로 통칭함)

- (나)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의 정보수요를 충족하도록 고안된 요구사항을 가진 다른 기준제정기구의 최신 발표문 (pronouncements)
- (다) 동일한 산업(들) 또는 지역(들)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이 식별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적용가능한 공시 요구사항의 식별

- 56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대해 적용가능한 공시 요구사항을 식별할 때, 기업은 해당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한다.
- 57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없을 때, 기업은 다음의 특성을 갖춘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판단을 한다.
- (1)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목적적합성
 - (2) 해당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대한 표현충실성
- 58 문단 57에 기술된 판단을 할 때 다음을 고려한다.
- (1) 기업은 SASB 기준에 포함된 공시 주제와 연관된 지표를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기업은 SASB 기준에 명시된 지표를 기업의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
 - (2) 기업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원천을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 (가)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
 - (나) 일반목적재무보고서 이용자의 정보수요를 충족하도록 고안된 요구사항을 포함한 다른 기준제정기구의 최신 발표문

- (다) 동일한 산업(들) 또는 지역(들)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이 공시한 정보(지표 포함)
- (3) 기업은 이 기준서의 목적(문단 1~4 참조)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록 C에서 정한 지침의 원천을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지침의 원천에 대한 정보 공시

- 59 기업은 다음을 식별한다.
- (1)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할 때(적용가능한 경우, SASB 기준의 공시 주제를 식별할 때를 포함) 적용한 구체적인 기준, 발표문, 산업 실무관행 및 다른 지침의 원천
 - (2)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할 때(적용가능한 지표를 식별할 때를 포함) 적용한 특정 산업(들)과 관련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ASB 기준 또는 기타 지침의 원천에서 명시되는 산업(들)

공시의 위치

- 60 기업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일부로서 제공한다.
- 61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나 그 밖의 요구사항에 따라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다양한 위치에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기업의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진설명서나 이와 유사한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다. 경영진설명서나 이와 유사한 보고서는 많은 관할권에서 요구되는 보고서이다. 이는 '경영진 보고서', '경영진 논의 및 분석(MD&A)', '운영 및 재무 검토', '통합 보고서'

또는 '전략 보고서' 등 다양한 이름의 보고서로 알려지거나 이들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다.

62 기업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와 마찬가지로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공시하는 정보와 동일한 위치에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그러한 추가 정보에 의해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한다(문단 B27 참조).

63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기업이 발행한 다른 보고서를 상호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포함될 수 있다. 상호참조로 포함된 정보에는 문단 B45~B47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보고시기

64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관련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관련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을 다룬다.

65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12개월 기간에 대해 작성한다. 그러나 실무적 이유로 어떤 기업은 52주의 보고기간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보고관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66 기업은 보고기간 종료일을 변경하여 12개월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 (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적용된 보고기간
- (2) 보고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

(3)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공시된 값이 완전하게 비교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

67 보고기간 말과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발행승인일 사이에 보고기간 말에 존재했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면, 새로운 정보를 고려하여 그러한 상황과 관련된 공시를 갱신한다.

68 보고기간 말과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내리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 주요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를 공시한다.

69 이 기준서는 중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대상기업, 보고주기 및 보고기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증권감독기구, 증권거래소 및 회계관련기구에서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을 상장한 기업이 중간 일반목적재무보고서를 발표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라 중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하도록 요구받거나 지정된 경우, 문단 B48을 적용한다.

비교정보

70 다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한, 당기에 공시된 모든 값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한다. 서술적이고 기술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대한 비교정보가 보고기간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면, 이러한 정보도 공시한다(문단 B49~B59 참조).

- 7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보고된 값은 예를 들어, 지표 및 목표 또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현재 재무적 영향 및 예상 재무적 영향과 관련될 수 있다.

준수 문구

- 72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한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한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수하였다고 기술하지 아니한다.
- 73 기업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현지 법률이나 규정이 금지하는 경우, 이 기준은 기업이 그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면제한다(문단 B33 참조). 또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에 대한 정보가 이 기준에서 설명하는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은 그 정보의 공시를 면제한다(문단 B34~B37 참조). 이러한 면제규정을 사용하더라도 기업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준수를 주장할 수 있다.

판단, 불확실성 및 오류

판단

- 74 기업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고, 그러한 공시 내의 정보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값의 추정에 수반되는 판단은 별도로 문단 77 참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 75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추정에
수반되는 판단과는 별개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보고되는 정보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판단을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다음의 과정에서 판단을 한다.
- (1)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
 - (2) 문단 54~58에 따라 적용할 지침의 원천 결정
 - (3)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포함할 중요한 정보의 식별
 - (4)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가 유의적인지, 그리고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범
위를 재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문단 B11 참조)
- 76 문단 74에 따라 요구하였을 정보 중 일부에 대한 공시를 다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에서 요구할 수 있다.

측정불확실성

- 77 기업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
시에 보고된 값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의적인 불확실성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 78 기업은 다음을 수행한다.
- (1) 높은 수준의 측정불확실성이 있는 공시된 값을 식별한다.
 - (2) 문단 78(1)에서 식별된 각 값과 관련하여 다음의 정보를 공시
한다.
 - (가) 측정불확실성의 원천(예: 미래 사건의 결과, 측정 기법
또는 기업의 가치사슬 데이터의 가용성과 품질에 대한
값의 의존성)
 - (나) 값을 측정할 때 기업이 사용한 가정, 근삿값 및 판단

- 79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보고된 값을 직접 측정할 수 없고 추정해야만 하는 경우 측정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어떤 경우, 추정은 불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한 미래 사건에 대한 가정을 수반한다. 합리적인 추정값의 사용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작성에 필수이며, 추정값이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는 한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측정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더라도 그러한 추정값이 유용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80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보고된 값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문단 77의 요구사항은 기업의 가장 어렵고 주관적이거나 복잡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추정값과 관련된다. 변수와 가정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러한 판단은 더욱 주관적이고 복잡해지며,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보고된 값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도 그에 따라 증가한다.
- 81 기업이 공시해야 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과 범위(extent)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보고되는 값의 성격, 즉 불확실성에 기여하는 요인과 원천, 그리고 그 밖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이 공시해야 할 수 있는 정보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가정 또는 기타 측정불확실성 원천의 성격
 - (2) 계산의 방법, 가정 및 추정값에 따른 공시된 값의 민감도(민감도에 대한 사유 포함)
 - (3) 공시된 값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불확실성의 해소 및 합리적으로 가능한 결과의 범위
 - (4)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은 경우, 공시된 값과 관련한 과거 가정의 변경에 대한 설명

- 82 문단 77~78에 따라 요구하였을 정보 중 일부에 대한 공시를 다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에서 요구할 수 있다.

오류

- 83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은 공시된 과거기간(들)의 비교값을 재작성함으로써 중요한 전기오류를 수정한다.
- 84 전기오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서 발생한 누락이나 왜곡표시를 의미한다. 이러한 오류는 다음과 같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 (1) 해당 기간(들)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발행승인일에 이용가능한 정보
 - (2) 그러한 공시를 작성하면서 획득되고 고려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보
- 85 오류수정은 추정값의 변경과 구별된다. 추정값은 추가 정보가 알려지는 경우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근삿값이다.
- 86 기업이 과거기간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서 중요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 문단 B55~B59를 적용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사업모형

기업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고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 활동을 통해 투입물을 산출물 및 성과로 변환하는 기업의 시스템

공시 주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또는 **SASB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특정 산업 내 기업이 수행한 활동을 기반으로 한 특정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

일반목적재무보고서

주요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 그러한 의사결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의 매수, 매도 또는 보유
- (2)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 제공 또는 매각
- (3) 기업의 경제적 자원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행위에 대한 의결권 또는 영향력의 행사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는 기업의 일반목적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발표한 그러한 명칭의 기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기업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다면 그 요구사항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중요한 정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해당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 그 정보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의 맥락에서 중요하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는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포함되며, 이는 특정 보고기업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주요이용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과 그 밖의 채권자
보고기업	일반목적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되거나 작성을 선택한 기업
시나리오 분석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미래사건의 잠재적 결과 범위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이나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보고기업 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그러한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한 기업의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와 관련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정보를 포함)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 의 특정 형태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 (이용자)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주요이용자)
참조. 이들 정의는 동일한 집단을 설명한다.

가치사슬

보고기업의 사업모형 및 보고기업이 운영되
는 외부환경과 관련된 상호작용, 자원 및 관
계의 전체 범위.

가치사슬은 기업이 기획에서 배송, 소비 및
수명종료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제품 또는 서
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고 의존하는 상
호작용, 자원 및 관계를 망라한다. 이는 기업
이 자체 운영하는 상호작용, 자원과 관계(예:
인적 자원), 공급, 마케팅 및 유통 채널에 있
는 상호작용, 자원과 관계(예: 자재 및 서비스
의 조달, 제품과 서비스 판매 및 배송), 그리
고 기업이 운영되는 자금조달, 지리적, 지정
학적, 규제 환경을 포함한다.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문단 11~12)

- B1 이 기준서는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또는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로 통칭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문단 3 참조).
- B2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는 기업과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기업의 이해관계자, 사회, 경제 및 자연환경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기업의 전략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모형과 기업을 운영하는 외부환경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은 기업이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자원 및 관계에 의존하면서도, 그러한 자원 및 관계의 보존, 재생 및 개발 또는 저하와 고갈의 원인이 되는 기업의 활동과 산출물로 인해 자원 및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적인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존성과 임팩트는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야기할 수 있다.
- B3 예를 들어, 기업의 사업모형이 물과 같은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그 자원의 품질, 가용성 및 가격적정성에 영향을 주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활동과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한 자원의 악화나 고갈은 기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고 기업의 사업모형이나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기업의 활동과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한 자원의 재생과 보존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기업이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고,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요구한다면, 기업의 미래 성공 여부는 그 자원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기업의 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그러한 능력은 부분적으로, 기업이 수행하는 종업원 교육과 복지 투자와 같은 기업의 고용 관행과 종업원의 만족, 참여, 유지 수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업이 타인을 위해 창출, 보존 또는 약화하는 가치와 기업 자신의 성공과 목표 달성 능력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B4 기업이 의존하고, 기업의 활동과 산출물로 영향을 미치는 자원 및 관계는 다양한 형태(예: 자연적, 제작된, 지적, 인간적, 사회적 또는 재무적)를 취할 수 있다. 자원 및 관계는 기업의 전종업원, 노하우 또는 조직의 프로세스와 같은 내부적 요소일 수도 있고, 기업이 접근해야 하는 원료 및 서비스, 또는 기업이 공급업체, 유통업체 및 고객과 맺고 있는 관계와 같은 외부적 요소일 수도 있다. 또한, 자원 및 관계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서 인식되는 자원 및 관계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B5 기업의 의존성과 임팩트는 기업이 직접 관여하는 자원과 기업의 직접적인 관계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존성과 임팩트는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자원 및 관계와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의존성과 임팩트는 기업의 공급 및 유통 채널, 기업 제품의 소비와 처분에 따른 영향, 기업의 자금조달의 원천 및 투자(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기업의 사업 파트너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직면하는 경우, 기업 자신도 관련된 결과에 노출될 수 있다.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

B6 기업은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음을 위해 사용한다(문단 B8~B10 참조).

- (1)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 (2) 각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가치사슬의 범위(폭 및 구성 포함)를 결정

B7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 문단 54~55의 지침의 원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

B8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할 때 기업이 사용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는 외부 환경의 일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기업 특유의 요인도 다뤄야 한다. 일부 경우(예: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는 경우)에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는 과거사건, 현재 상황 및 미래 상황 예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다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특정한 경우에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명시할 수 있다.

B9 기업은 내부 및 외부 모두의 다양한 데이터 원천을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한 데이터의 원천에는 기업의 위험관리 프로세스, 산업 및 동료 집단의 경험, 외부 등급, 외부 보고서, 외부 통계가 포함된다.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사업모형을 운영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정보는 기업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가능한 것으로 본다.

- B10 기업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위해 광범위하게 조사(exhaustive search)할 필요는 없다. 무엇이 과도한 원가와 노력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기업 특유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기업의 비용 및 노력과 주요이용자의 정보 효익 사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평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변화하면서 바뀔 수 있다.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범위 재평가

- B11 유의적인 사건 또는 유의적인 상황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범위 재평가한다. 유의적인 사건 또는 유의적인 상황의 변화는 기업이 해당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발생하거나,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변화한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유의적 사건 또는 상황의 유의적인 변화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1) 기업 가치사슬에서의 유의적 변화(예: 기업의 가치사슬에 있는 공급자가 그 공급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의적으로 변동시키는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
- (2) 기업의 사업모형, 활동 또는 기업구조의 유의적인 변화(예: 기업의 가치사슬을 확장하는 합병 또는 인수)
- (3)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의 유의적 변화(예: 기업의 가치사슬 내 공급업체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규제 도입에 영향을 받는 경우)

B12 기업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범위를 문단 B11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자주 재평가할 수 있지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성(문단 17~19)

B13 문단 17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정보의 중요성은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할 경우, 주요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단한다.

B14 주요이용자의 의사결정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되며, 다음의 의사결정을 수반한다.

- (1)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의 매수, 매도 또는 보유
- (2)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 제공 또는 매각
- (3) 기업의 경제적 자원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행위에 대한 의결권 또는 영향력의 행사

B15 문단 B14에 기술된 의사결정은 주요이용자가 기대하는 수익, 예를 들어 배당, 원금 및 이자의 지급 또는 시장가격의 상승에 의존한다. 그러한 기대는 기업의 미래 순현금유입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대한 주요이용자의 평가, 그리고 기업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과 의사결정기구(들) 또는 개인(들)의 수탁책임에 대한 주요이용자의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

B16 정보가 주요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때에는 그러한 이용자의 특성과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다.

- B17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성실하게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주요이용자들을 위해 작성된다. 때로는 박식하고 성실한 이용자들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자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 B18 각 주요이용자들의 정보수요 및 욕구는 서로 다르고 때로는 상충하기도 한다. 주요이용자의 정보수요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주요이용자의 공통된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요한 정보의 식별

- B19 중요성 판단은 기업 특유의 사항이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중요성에 대한 임계치를 명시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결정하지 않는다.
- B20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출발점으로서 해당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해당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문단 57~58에서 명시한 지침의 원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그러한 원천은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 특정 산업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 목적적합한 정보(지표 포함)를 명시하고 있다.
- B21 개별적으로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문단 B20을 적용하여 식별된 정보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맥락에서 중요한지를 기업은 평가한다. 정보가 중요한지를 평가할

때는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 모두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성격을 고려할 수 있다.

B22 일부의 경우,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불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한 미래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가능한 미래 사건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지를 판단할 때, 기업은 다음을 고려한다.

- (1)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가능한 결과’로 통칭함)
- (2) 가능한 결과의 범위와 해당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결과의 발생가능성

B23 가능한 결과를 고려할 때, 기업은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잠재적 영향이 유의적이고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능한 미래 사건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기업은 발생가능성은 낮고 영향이 큰 정보가 개별적으로 중요한지, 또는 발생가능성은 낮고 영향이 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중요할 수 있는지도 고려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여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각 위험들은 기업의 공급망 붕괴와 같은 동일한 유형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개별적 위험 원천으로부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그 위험 원천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통합된 위험(모든 원천에 의한 공급망 붕괴 위험)에 대한 정보는 중요할 수 있다.

B24 가능한 미래 사건이 기업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년 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사건에 대한 정보는 더 일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동일한 영향을 가져오는 유사한 미래 사건에 대한 정보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될 가능

성이 일반적으로 더 낮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정보 항목이 미래 사건의 잠재적 영향의 크기나 사건의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주요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대한 정보가 기업의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에 의해 면밀히 조사되는 경우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B25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경우 기업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특정 요구사항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B26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B27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명확히 식별하고, 기업이 제공하는 다른 정보와 구분한다(문단 62 참조). 기업은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주요이용자에게 그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정보가 소통된다면 그 정보는 불분명한 것이다.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중요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추가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
- (2) 중요한 정보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공시되지만, 사용한 언어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 (3)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전반에 흩어져 있는 경우

- (4) 상이한 정보 항목들이 부적절하게 통합된 경우
- (5) 비슷한 정보 항목들이 부적절하게 세분화된 경우
- (6) 주요이용자가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가려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이해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

B28 기업은 변동된 상황과 가정을 고려하기 위해 매 보고일에 자신의 중요성 판단을 재평가한다. 기업의 개별 상황이나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과거기간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포함된 일부 유형의 정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과거에는 공시되지 않은 정보의 일부 유형이 중요해질 수도 있다.

통합 및 세분화

B29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할 때, 기업은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서 정보를 어떻게 통합하고 세분화할 것인지를 결정 한다. 기업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중요한 항목들을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한다.

B30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하게 되는 경우, 정보를 통합해서는 안 된다. 정보는 정보의 항목들이 서로 공유되는 특성을 보일 때 통합되어야 하며, 공유되는 특성이 없을 때는 통합되어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는 지리적 위치 또는 지정학적 환경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기업은 물이 풍부한 원천에서 취수한 물과 물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에서 취수한 물을 구분하여 기업의 물 사용에 대한 공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법률 또는 규정과의 상호작용

- B31 법률이나 규제는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정보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법적 또는 규제 조항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
- B32 법률이나 규제가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도록 허용하더라도 기업은 그러한 정보를 공시한다.
- B33 법률이나 규제가 정보의 공시를 금지한다면, 기업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이유로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는 경우 공시되지 않은 정보의 유형을 식별하고 제약의 원천을 설명한다.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

- B34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에 대한 정보가 문단 B35에서 설명하는 제한된 상황에서 상업적으로 민감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서 그러한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해당 정보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되고 중요하더라도 이러한 생략은 허용된다.
- B35 다음의 경우에만 문단 B34에 명시된 면제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1)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에 대한 정보가 아직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 (2) 해당 정보의 공시가 기업이 기회를 추구할 때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 (3) 기업이 기회를 추구할 때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공시 요구사항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방식(예: 통합된 수준의 정보로 공시)으로 공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B36 문단 B34에서 정한 면제규정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생략된 정보의 항목별로 다음을 적용한다.

- (1) 면제규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공시
- (2) 매 보고일에 해당 정보에 면제규정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재평가

B37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관련하여 또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광범위한 미공시의 근거로 문단 B34에서 정한 면제규정을 사용할 수 없다.

보고기업(문단 20)

B38 문단 20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보고기업은 관련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해야함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IFRS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는 단일 보고기업으로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그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미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계된 정보(문단 21~24)

- B39 문단 21은 정보와 관련된 항목 간의 연계와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서 제공하는 공시 간의 연계를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 B40 연계된 정보는 그 정보가 관련된 항목 간의 연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기업이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를 추구하여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킨 경우, 연계된 정보는 기업의 전략과 재무성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 (2) 기업이 기업에 노출된 두 가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간의 절충을 식별하고, 그 절충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기초하여 조치를 취한 경우, 연계된 정보는 그러한 위험과 기업의 전략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 (3) 기업이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에 대해 약속하였지만, 적용 가능한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약속이 아직 기업의 재무상태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연계된 정보는 해당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 B41 연계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다음과 같은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정보 간의 연계
 - (가)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의 공시 간의 연계
 - (나) 서술적 정보와 양적 정보(관련 지표 및 목표, 관련 재무제표상의 정보 포함) 간의 연계
 - (2)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간의 연계.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감독이 통합되는 경우, 각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거버넌스에 대해 별도의 공시를 제공하는 대신, 거버넌스에 대한 공시를 통합한다.

B42 공시 간의 연계를 도출하려면 필요한 설명과 상호참조를 제공하고, 일관된 데이터, 가정 및 측정 단위의 사용이 수반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연계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기업은 다음을 수행한다.

- (1) 공시 간의 연계를 명확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설명한다.
- (2)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공통적인 항목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면 불필요한 중복을 피한다.
- (3)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및 가정과, 관련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및 가정 사이의 유의적인 차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B43 예를 들어, 기업이 연계된 정보를 제공할 때, 기업의 전략이 재무제표와 재무계획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설명하거나, 그러한 전략이 목표 대비 진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자신의 천연자원 사용이나 공급망 내의 변화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증가 또는 반대로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기업은 천연자원의 사용이나 공급망 내의 변화와 관련한 정보를 기업의 생산원가에 미치는 현재 재무적 영향 또는 예상 재무적 영향, 그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새로운 자산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정보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은 서술적 정보를 관련 지표 및 목표, 그리고 관련 재무제표상의 정보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다.

B44 연계된 정보의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 (1)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전략이 결합하여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 기업은 저탄소 대체재에 대한 소비자 선호로 인해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에 직면할 수 있다. 기업은 주요 공장 폐쇄와 같은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전 종업원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공장 폐쇄가 자산의 내용연수와 손상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2) 기업이 고려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상충에 대한 설명(문단 33(3)참조)을 포함하여,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할 때 평가한 대안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 대응하는 사업 구조조정 결정이 미래 전 종업원의 규모와 구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상호참조(cross-reference)로 포함되는 정보(문단 63)

B45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기업이 발행하는 다른 보고서에서도 이용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요구되는 정보가 관련 재무제표에서 공시될 수 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중요한 정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상호참조로 포함될 수 있다.

- (1) 상호참조된 정보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가능하다.
- (2) 상호참조로 포함된 정보로 인해 전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이해가능성 저하 되지 않는다.

B46 상호참조로 포함된 중요한 정보는 전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일부가 되며, 해당 정보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며,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능해야 한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를 승인하는 기구(들) 또는 개인(들)은 상호참조로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도 직접 제공한 정보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B47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상호참조로 포함되는 경우, 다음을 준수한다.

(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해당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그 보고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2) 그 보고서의 정확하게 지정된 부분을 상호참조한다.

중간보고(문단 69)

B48 적시성과 비용 제약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미 보고된 정보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기업은 중간보고 시점에는 지속가능성 관련 연차 재무공시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중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직전의 전체 지속가능성 관련 연차 재무정보를 갱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시는 새로운 정보, 사건 및 상황에 중점을 두며 이미 보고된 정보를 반복하지 않는다. 지속가능성 관련 중간 재무공시에 제공되는 정보가 지속가능성 관련 연차 재무공시의 정보보다 간결할 수 있더라도, 기업이 중간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로서 이 기준이 정하는 바와 같이 전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지하지 않는다.

비교정보(문단 52, 70, 83~86)

B49 문단 70에서는 보고기간에 공시되는 모든 값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지표

B50 어떤 경우에는 지표에 대해 공시된 값이 추정값일 수 있다. 문단 B51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업이 전기에 공시된 추정값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보를 식별하고 새로운 정보가 그 기간에 존재

했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기업은 다음을 수행한다.

- (1)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는 수정된 비교값을 공시한다.
- (2) 전기에 보고한 값과 수정된 비교값 간의 차이를 공시한다.
- (3) 비교값을 수정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B51 문단 B50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정된 비교값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 (1) 비교값을 실무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경우(문단 B54 참조)
- (2) 지표가 미래전망적인 경우. 미래전망 지표는 가능한 미래의 거래, 사건 및 그 밖의 조건과 관련된다. 미래전망 지표의 비교값을 수정하는 것이 사후판단(hindsight)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미래전망 지표의 비교값을 수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B52 기업이 보고기간에 지표를 재정의하거나 대체하는 경우, 기업은 다음을 수행한다.

- (1)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정된 비교값을 공시한다.
- (2) 변경에 대해 설명한다.
- (3) 재정의되거나 대체된 지표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그러한 변경의 이유를 설명한다.

B53 보고기간에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지표에 대한 비교값을 공시한다.

B54 때로는 보고기간과의 비교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비교값을 수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표 또는 목표에 새로운 정의를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전기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을 수 있고, 실무적으로 데이터를 재생산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만약 전기의 비교정보를 수정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기업은 그 사실을 공시한다.

오류

- B55 문단 83에서는 중요한 전기오류를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 B56 이러한 오류는 산술적 계산오류, 지표 또는 목표의 정의 적용오류, 사실의 간과 또는 해석의 오류 및 부정행위 등의 영향을 포함한다.
- B57 보고기간 중에 발견한 해당 보고기간의 잠재적 오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발행승인일 전에 수정한다. 그러나 때때로 중요한 오류가 후속기간까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 B58 기업이 과거기간(들)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서 중요한 오류를 식별한 경우,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 (1) 전기오류의 성격
 - (2)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공시된 각 과거기간의 수정사항
 - (3) 실무적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오류수정의 적용방법과 적용한 시기에 관한 내용
- B59 표시된 과거기간 전체에 대해 오류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부록 C. 지침의 원천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 C1 이 기준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없을 때, 기업이 다음의 특성을 갖춘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판단을 하도록 요구한다(문단 57 참조).
- (1)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목적적합성
 - (2) 해당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대한 표현충실성
- C2 그러한 판단을 할 때, 기업은 이 기준서의 목적(문단 1~4 참조)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원천을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 (1)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기준
 - (2)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 C3 문단 C2에 명시한 지침의 원천을 적용할 때, 기업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문단 B27 참조). 기업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문단 C2에 명시된 지침의 원천을 적용하는 경우,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준수하였다고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부록 D.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도입

- D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의해 발표되었다. '개념체계'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목적과 이에 적용되는 개념을 서술한다. '개념체계'의 한 가지 목적은 IASB가 일관된 개념에 기반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준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 D2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일부이다. 따라서 '개념체계'에서의 질적특성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 기준서의 목적(문단 1~4 참조)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일부 정보의 성격은 일부 측면에서 일반목적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다르다.
- D3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목적적합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한다면, 그 정보는 유용하다.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은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특성이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능한 경우 그 정보의 유용성은 보장된다.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보장시키는 특성이다.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특성

목적적합성

- D4 목적적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주요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보는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원천을 통하여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 D5 주요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의 투입변수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값 또는 예상값일 필요는 없다. 예측가치를 갖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주요이용자들 자신이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수질에 대한 정보는 오염된 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지역의 수질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에 대한 이용자들의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D6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 D7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래 연도 탄소 배출량의 예측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당해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과거 연도에 행한 당해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값과 비교할 수 있다. 그러한 비교 결과는 이용자가 그 과거 예측에 사용한 프로세스를 수정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요성

- D8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그러한 보고서를 기초로 내리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즉, 중요성은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 합성을 의미한다. 정보의 중요성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맥락에서 평가되며,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다에 근거한다.

표현충실성

- D9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낸다.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 D10 표현충실성을 위해서 서술은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정확해야 한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목적은 가능한 그러한 특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 D11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대한 완전한 서술은 주요이용자가 위험 또는 기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 D12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독립적 서술은 정보의 선택이나 공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다. 주요이용자가 정보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편파적이거나, 편중되거나, 강조되거나, 경시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조작되지 않는다면, 그 정보는 독립적이다. 독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목적적합한 정보는 정의상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정보이다.

D13 일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예: 목표 또는 계획)는 포부를 담고 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한 중립적 서술은 기업의 포부와 이러한 포부를 달성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까지 모두 포함한다.

D14 중립성은 신중을 기함으로써 뒷받침된다.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기회가 과대하게 기술되지 않고 위험이 과소하게 기술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기회를 과소하게 기술하거나 위험을 과대하게 기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D15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정확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밀하지 않아도 정보는 정확할 수 있다. 요구되고 달성가능한 정밀도와 정보를 정확하게 만드는 요소는 정보의 성격과 해당 정보가 다루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정확성은 다음을 요구한다.

- (1) 사실 정보에 중요한 오류가 없다.
- (2) 서술이 정밀하다.
- (3) 추정값, 근삿값 및 예측값이 명확하게 식별된다.
- (4) 추정값, 근삿값 또는 예측값을 도출하기 위해 적절한 프로세스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데 중요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 (5) 추정값 도출에 사용된 주장과 투입변수는 합리적이며 충분한 양적, 질적 정보에 기반한다.
- (6) 미래에 대한 판단 정보는 그러한 판단과 그 기반이 되는 정보를 충실하게 반영한다.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보강적 질적특성

D16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능한 경우 그 정보의 유용성은 보장된다.

비교가능성

D17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의 의사결정은, 예를 들어, 투자 자산을 매도 또는 보유할지, 또는 어느 보고기업에 투자할지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대안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비교가능성은 이용자들이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다. 다른 질적특성과 달리 비교가능성은 단 하나의 항목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비교하려면 최소한 두 항목이 필요하다. 정보가 비교가능하다면, 즉 다음과 비교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이용자에게 더욱 유용하다.

- (1) 과거기간에 기업이 제공한 정보
- (2) 다른 기업(특히, 유사한 활동을 하는 또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 운영되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

D18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D19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일관성은 동일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를 제공할 때, 보고기업 및 다른 기업 모두가 기간 간 동일한 접근법 또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D20 비교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정보가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은 비슷한 것을 달리 보

이게 하여 높아지지 않는 것처럼, 비슷하지 않은 것을 비슷하게 보이게 한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는다.

검증가능성

- D21 검증가능성은 이용자에게 정보가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정확하다는 확신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 정보는 정보 자체나 정보를 도출하는 데 사용된 투입변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검증가능하다. 주요이용자에게 검증가능한 정보는 검증할 수 없는 정보보다 더 유용하다.
- D22 검증가능성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에 있어, 반드시 완전히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더라도,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춘 독립된 다양한 관찰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 단일 점추정값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값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
- D23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검증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검증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높일 수 있다.
- (1) 기업의 사업, 그 밖의 사업 또는 기업이 운영되는 외부 환경에 대해 주요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와 비교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 (2) 추정값 또는 근삿값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투입변수 및 계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3) 기업의 이사회, 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검토하고 동의한 정보를 제공한다.
- D24 일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설명 또는 미래전망 정보로 제시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사실에 기반을 둔 전략, 계획 및 위험 분석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등의 방식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주요이용자가 이러한 정보를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업은 정보를 생산하는 데 기초한 가정과 방법, 그리고 정보가 실제 계획이나 기업의 결정을 반영한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그 밖의 요소를 설명한다.

적시성

- D25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이용자들은 추세를 식별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해가능성

- D26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명확하고 간결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간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하다.
- (1) 기업에 특유하지 않은, 틀에 박힌(boilerplate) 일반적인 정보를 피한다.
 - (2)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정보 중복을 피한다. 이는 관련 재무제표에서 제공된 정보의 불필요한 중복도 포함한다.
 - (3) 명확한 말과 명확하게 구조화된 문장과 단락을 사용한다.
- D27 가장 명확한 형태의 공시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다르며 때로는 서술적 설명 외에 표, 그래프 또는 도표를 포함할 수 있다. 그래프나 도표를 사용하는 경우, 중요한 세부 정보가 불분명하게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설명이나 표가 필요할 수 있다.
- D28 명확성은 보고기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한 정보를, 한 기간에서 다음 기간까지 변하지 않거나, 거의 변하지 않는 '상시' 정보와 구별

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전 보고기간 후에 변경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거버넌스와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별도로 서술한다.

D29 중요한 정보만 포함한다면 공시는 간결하다. 중요하지 않지만 포함된 정보는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D30 일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는 본질적으로 복잡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기업은 그러한 정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복잡한 정보가 보고서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정보를 제외하면, 그 보고서는 불완전하여 잠재적으로 오도할 것이다.

D3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완전성, 명확성 및 비교가능성은 모두 일관된 전체로서 제공되는 정보에 의존한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일관되기 위해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관련 정보 간의 맥락과 연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D32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한 부분에 위치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다른 부분에 공시된 정보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기업은 이용자가 그러한 시사점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D33 일관성은 또한 이용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기업의 재무제표에 있는 정보와 연관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부록 E. 시행일 및 경과규정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시행일

- E1 이 기준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이 기준서를 조기적용하면,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동시에 적용한다.
- E2 문단 E3~E6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최초 적용일은 기업이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다.

경과규정

- E3 기업은 최초 적용일 전 모든 기간에 대해 이 기준서에서 명시한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해 비교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 E4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관련 재무제표를 발행한 후에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보고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과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시점에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보고한다.
- (1) 기업이 중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다음 2분기 또는 반기 일반목적 중간재무보고서와 동시에 보고

- (2) 기업이 자발적으로 중간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2분기 또는 반기 일반목적 중간재무보고서와 동시에 보고(다만,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9개월 이내여야 한다)
- (3) 기업이 중간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공하지도 않는 경우,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9개월 이내에 보고

E5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IFRS S2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만을 공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의 공시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과규정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E6 만약 기업이 문단 E5의 경과규정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을 고려한다.

- (1) 기업이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비교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문단 E3 참조).
- (2)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두 번째 회계연도에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제외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비교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2023년 6월에 발표한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ISSB의 승인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의 위원 14명 모두에게 발표를 위한 승인을 받았다.

Emmanuel Faber

위원장

Jingdong Hua

부위원장

Suzanne Lloyd

부위원장

Richard Barker

Jenny Bofinger-Schuster

Verity Chegar

Jeffrey Hales

Michael Jantzi

Hiroshi Komori

Bing Leng

Ndidi Nnoli-Edozien

Tae-Young Paik

Veronika Pountcheva

Elizabeth Seeger

부속지침

부속지침 목차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부속지침

	다음 문단 이후
예시지침	IG1
주요이용자	IG1
주요이용자의 정보수요 충족	IG2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의 이용	IG7
지침의 원천의 적용	IG8
SASB 기준	IG11
CDSB 프레임워크 적용 지침	IG25
예시사례	IE1
SASB 기준	IE1
사례 1 - 단일 사업부문 영위 기업	IE3
사례 2 - 다양한 활동을 하는 대형 복합기업(conglomerate)	IE9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예시지침

이 지침은 IFRS S1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침은 IFRS S1의 측면들을 보여주지만, 해석상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이용자

IG1 IFRS S1의 목적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¹⁾

주요이용자의 정보수요 충족

IG2 정보가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때, 기업은 주요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되 동시에 기업의 자체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기업의 일반목적재무제표 및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IG3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주요이용자이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성실히 정보를

1) IFRS S1 전반에서 ‘주요이용자’와 ‘이용자’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며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를 의미한다.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를 위해 작성된다. 그러나 박식하고 성실한 이용자들도 하더라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IG4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주요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기업은 주요이용자의 공통된 정보수요를 충족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한다. 기업은 전문화된 정보에 대한 수요(특정 이용자의 고유한 정보수요)를 다루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IG5 주요이용자의 공통된 정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은 먼저 세 가지 중 한 가지 유형의 주요이용자(예: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의 정보 요구사항을 별도로 식별한다. 그런 다음 기업은 나머지 두 유형인 대여자(현재 및 잠재적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현재 및 잠재적 채권자)에 대해 평가를 반복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식별한 결합된 정보수요는 기업이 충족하고자 하는 일련의 공통된 정보수요를 형성한다.

IG6 다시 말해, 공통된 정보수요의 평가는 모든 이용자가 공유하는 정보수요의 식별을 요구하지 않는다. 식별된 정보수요 중 일부는 모든 유형의 이용자에게 공통적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일부 정보수요는 한두 가지 유형의 이용자에게만 한정될 수 있다. 기업이 모든 유형의 주요이용자에게 공통된 정보수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한 가지 유형의 이용자의 수요만 충족하는 정보는 배제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의 이용

IG7 주요이용자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요이용자는 기업이 운영되는 산업에 대한 정보,

경쟁기업 및 경제현황에 대한 정보, 그리고 기업의 보도자료 및 기업이 발행한 기타 문서에 있는 정보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다는 사실이 단기, 중기 또는 장기 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또는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할 기업의 책임을 경감시키지는 않는다. 이러한 위험 및 기회를 통칭하여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라고 한다.

지침의 원천의 적용

- IG8 이 지침은 IFRS S1에서 요구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지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하지는 않는다.
- IG9 IFRS S1은 기업이 특정 지침의 원천을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지침의 원천을 명시하고 있다 (IFRS S1 문단 54~59 및 부록 C 참조). 이러한 원천은 다음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1)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 (2) 그러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로서, 일반 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하면서, 해당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정보
- IG10 문단 IG11~IG27은 기업이 IFRS S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지침의 원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문단 IG11~IG24는 SASB 기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문단 IG25~IG27은 ‘물 관련 공시를 위한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 및 ‘생물다

양성 관련 공시를 위한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통칭하여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에 중점을 두고 있다.

SASB 기준

IG11 IFRS S1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 SASB 기준의 공시 주제를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IG12 SASB 기준은 산업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SASB 기준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1) 산업 설명 -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는 사업모형, 활동, 또는 그 외의 공통적인 특성을 설명하여 기업이 적용가능한 산업 지침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공시 주제 - 특정 산업 내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과 연관된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를 설명한다.
- (3) 지표 - 공시 주제와 함께 제공되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의 일부로 특정 공시 주제에 대한 기업의 성과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고안되었다.
- (4) 세부 프로토콜 - 연관 지표의 정의, 범위, 이행 및 표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5) 활동 지표 - 기업의 특정 활동 또는 운영 규모를 정량화하며, 데이터를 정규화하고 용이한 비교를 위해 문단 IG12(3)에서 언급된 지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G13 SASB 기준의 공시 주제 및 연관 지표는 완전한 것은 아니다. IFRS S1은 기업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정하게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적용가능한 SASB 기준의 식별

- IG14 각 SASB 기준은 산업명과 설명을 포함한다. 이는 사업모형 및 연관 활동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SASB 기준(들)을 기업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명은 기업이 스스로 속해있다고 판단하는 산업과 정확히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산업이 다양한 관례에 따라 분류 및 정의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정 산업에 대한 하나의 SASB 기준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사업활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활동 또는 적어도 유사한 활동은 다른 SASB 기준들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 IG15 적용가능한 SASB 기준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특정 SASB 기준이 다루는 활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SASB 기준은 '산업 설명' 부분에서 해당 기준이 다루는 사업에 대해 요약하고 있다.
- IG16 일부 기업들은 자신의 사업모형 및 활동이 단일 SASB 기준의 산업 설명과 밀접하게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해당 기업은 적용가능한 단일 SASB 기준만 참조하면 될 것이다(문단 IE3~IE8 참조). 다른 경우의 기업들은 그들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둘 이상의 SASB 기준을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문단 IE9~IE15 참조). 이러한 기업에는 단일 SASB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 더 광범위한 활동 범위를 가지는 복합적이거나 복잡한 사업모형을 가진 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

공시 주제

IG17 기업은 자신의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부합하는 SASB 기준(들)을 식별한 후, 식별된 SASB 기준(들)에 포함된 공시 주제가 기업의 활동에 적용가능한지 고려한다. 공시 주제는 특정 산업 내에서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된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설명한다. 이러한 공시 주제는 기업의 사업모형 및 활동에 기초하여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일관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IG18 예를 들어 육류, 가금류 및 유제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육류, 가금류 및 유제품’ SASB 기준에 포함된 공시 주제를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이 산업에 대한 해당 SASB 기준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업은 다음과 같은 공시 주제가 기업의 상황에 적용가능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1) 식품 안전
- (2) 전 종업원(workforce)의 보건 및 안전

IG19 따라서 기업은 IFRS S1 문단 55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SASB 기준의 공시 주제(문단 IG18에 열거된 공시 주제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공시 주제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리콜을 초래하고, 기업의 브랜드 평판을 손상시키며, 벌금이 부과되고, 수익을 감소시키며, 거래제한을 포함한 규제기관의 감독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IFRS S1 문단 33에서 요구하는 식별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해당 공시 주제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판 손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이직, 종업원의 저조한 사기 및 생산성, 의료 및 종업원 보상비용을 수반하는 상해에 대한 잠재적 부채와 연관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기업의 강력한 전 종업원 대상 안전 관행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IG20 기업은 적용가능한 모든 공시 주제에 대해 이러한 접근법을 반복할 수 있다. SASB 기준은 주어진 산업 내에서 일반적인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을 안내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SASB 기준이 다음에 해당할 수 있다.

- (1) 특정 산업 내의 모든 기업에 대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 공시 주제를 포함한다.
 - (2)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공시 주제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자신의 사업모형으로 인해 특정 공시 주제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그 공시 주제가 다루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IFRS S1 문단 55(2)에 명시된 추가 지침의 원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지표

IG21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없을 때, IFRS S1은 SASB 기준에 포함된 공시 주제와 연관된 지표들을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기업은 SASB 기준에 명시된 지표가 기업의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IG22 예를 들어, 육류, 가금류 및 유제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육류, 가금류 및 유제품' SASB 기준에 포함된 다음 지표를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1) 식품 안전

- (가) FB-MP-250a.1 - 국제식품안전협회(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GFSI) 감사 결과 (1) 주요(major) 부적합 및 (2)

경미한(minor) 부적합 각각에 대한 (a) 비율 및 (b) 관련 시
정조치 비율

(나) FB-MP-250a.2 - GFSI 식품 안전 인증 프로그램에서 인증
받은 공급업체 시설의 비율

(다) FB-MP-250a.3 - (1) 발표된 리콜 건수 및 (2) 리콜된 제품의
총중량

(라) FB-MP-250a.4 - 기업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시장에 대한
논의

(2) 전 종업원(workforce) 보건 및 안전

(가) FB-MP-320a.1 - (1) 총기록 재해율(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 TRIR) 및 (2) 사망률

(나) FB-MP-320a.2 - 급성 및 만성 호흡기 건강 상태를 평가,
모니터링 및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

IG23 이러한 각 지표는 정의, 범위, 이행 및 표시에 대한 상세한 지침
을 제공하는 세부 프로토콜에 의해 뒷받침된다. 예를 들어 함께
제공되는 세부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경우, 육류, 가금류 및 유제
품 사업을 영위하는 가상의 기업은 종업원의 근로 위치 및 고용
유형(예: 정규직, 시간제, 직접고용, 간접고용, 임원, 노무직, 연봉
제, 시급제 또는 계절제)과 관계없이 전 종업원의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기업은 전 종업원의 보건 및 안전
관련 위험이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도록
하는 IFRS S1 문단 32(1)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이러한 정
보를 공시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서 전
종업원의 보건 및 안전 관련 위험이 집중된 부분을 기술하도록
하는 IFRS S1 문단 32(2)의 요구사항에 따른 공시를 위해 이러한
정보를 세분화(예: 사업장 위치별로)할 수 있다. 또한, 세부 프로토
콜은 공시된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판단기준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IG24 함께 제공되는 세부 프로토콜은 가상의 기업이 적절한 맥락에서 지표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에 대한 예시로는 주목할 만한 리콜에 대한 논의[리콜 사안의 원인, 총수량, 개선 비용, 성격(자발적 또는 강제적), 관련 시정조치, 법적 절차 또는 소비자 질병과 같은 기타 중요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은 식품안전 관련 위험이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현재 재무적 영향과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IFRS S1 문단 35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

IG25 IFRS S1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 기업은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을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IFRS S1 문단 55 참조).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없을 때, 기업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를 충실하게 나타내는 정보를 식별할 때,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을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IFRS S1 문단 57~58 참조).

IG26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은 기업이 물 및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물다양성 관련 공시를 위한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은 토양 비옥도 감소, 농작물 생산을 위한 수분공급의 감소 및 어류자원의 가용성 감소와 같은 잠재적인 생물다양성 관련 물리적 위험을 식별한다. 마찬가지로, '물 관련 공시를 위한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은 물 효율성 향상,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그리고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그들과의 협력을 통한 생태계 보전 및 복원과 같은 잠재적인 물 관련 기회를 식별한다. 연계된 정보에 대한 IFRS S1 문단 21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은 물 및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예: 보다 빈번해지는 홍수와 같은 물 관련 위험은 종종 기후 관련 위험과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IG27 기업은 SASB 기준,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 또는 IFRS S1 문단 55에 따른 그 밖의 지침의 원천에 따라 물 및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없을 때,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물 또는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대한 정보(지표 포함)를 식별할 때, 기업은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기업은 IFRS S1 문단 25~53의 핵심요소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을 고려할 수 있다.

- (1) 거버넌스 - 물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거버넌스에 대한 공시를 제공할 때, '물 관련 공시를 위한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은 물 관련 정책, 전략 및 정보가 경영진에게 어떻게 위임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제공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이 지침은 효과적인 물 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관련하여 유의적인 물 손실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위치하면서 물 관련 규제 준수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특정 기구, 개인 또는 메커니즘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 (2) 전략 -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전략에 대한 공시를 제공할 때, '생물다양성 관련 공시를 위한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은 예를 들어 기업이,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지리적 특수성과 그러한 위험 및 기회가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이 지침은 기업이 IFRS S1 문단 34~40에 따라 제공할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양적 및 질적 정보의 유형을 제안하며, 그 예시로는 오염유출과 같은 사고에 대한 시정조치 비용 또는 충당금, 직원 교육비용 및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제품 및 서비스로부터의 수익 등 생물다양성 관리와 연관된 영업비용, 원가절감 및 수익이 있다.

- (3) 지표 및 목표 - '생물다양성 공시를 위한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은 폐수의 주요 오염물질 농도,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 수확량, 도시화로 인해 전환된 숲, 초지 또는 습지 면적과 같은 일반적인 생물다양성 지표의 예시를 제공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변화를 감안하여, 이 지침은 기업이 목표에 대해 설정한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 지침은 생물다양성 우선순위의 지역별 다양성과 법적 및 규제 조항의 다양성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 맞춤화된 지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예시사례

이 예시사례는 IFRS S1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례는 IFRS S1의 측면들을 보여주지만 해석상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IE1 이 사례에서는 기업이 IFRS S1의 일부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된 제한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가상의 상황을 보여준다. 각 사례의 분석은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며, 해당 사례가 기술된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도록 의도한 것도 아니다. 사례의 일부 측면이 실제 사실관계를 나타낼 수 있을지라도, 기업은 IFRS S1을 적용할 때 특정 사실관계에 관련되는 사실과 상황을 모두 평가해야 한다.

SASB 기준

IE2 사례 1과 2는 기업이 지침의 원천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한 요구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SASB 기준의 공시 주제를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IFRS S1 문단 55(1) 참조).
- (2) SASB 기준에 포함된 공시 주제와 연관된 지표를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IFRS S1 문단 58(1) 참조).
- (3)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는 데 적용한 특정 기준, 발표문, 산업 실무관행 및 기타 지침의 원천을 식별한다. 적용가능한 경우, SASB 기준의 공시 주제 식별을 포함한다(IFRS S1 문단 59(1) 참조).
- (4)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ASB 기준 또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할 때(적용가능한 지표를 식별할 때를

포함) 적용한 특정 산업(들)과 관련된 기타 지침의 원천에 명시된 산업(들)을 식별한다(IFRS S1 문단 59(2) 참조).

- (5) 기업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외의 원천 상의 지표를 공시하는 경우 그 원천과 지표가 무엇인지를 식별한다(IFRS S1 문단 49 참조).

사례 1 - 단일 사업부문 영위 기업

- IE3 기업 Y는 지역 여객항공사이다.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 기업 Y는 IFRS S1 문단 54에 따라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하는 것 외에도, 기업 Y는 SASB 기준의 공시 주제를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 Y는 자신의 사업모형과 활동이 '항공' SASB 기준과 가장 밀접하게 부합한다고 결론 내린다.
- IE4 기업 Y는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적용하고,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또는 기회를 식별한다. 또한 기업 Y는 IFRS S1 문단 55(1)에 따라 '항공' SASB 기준의 공시 주제를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기업 Y는 '항공' SASB 기준의 네 가지 공시 주제 모두 기업의 활동에 적용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식별을 안내하기 위해 그러한 공시 주제를 사용한다.
- IE5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때, 기업 Y는 식별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업 Y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IFRS S2를 적용한다. 기업 Y가 식별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구체적으

로 적용되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없을 때, 기업 Y는 '항공' SASB 기준의 적용가능한 공시 주제와 연관된 지표를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기업 Y는 이러한 지표를 적용하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하고 기업이 식별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충실하게 표현되는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예를 들어, '사고 및 안전관리' 공시 주제와 연관된 지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TR-AL-540a.1 -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 및 이행결과에 대한 기술
- (2) TR-AL-540a.2 - 항공 사고 건수
- (3) TR-AL-540a.3 - 정부의 항공 안전규제 제재조치 건수

IE6 제공할 정보를 식별할 때, 기업 Y는 지표와 함께 제공되는 세부 프로토콜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기업 Y는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식별한 안전위험 및 유해한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행한 모든 조치 또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 또는 방법에는 예를 들어 통제, 운영, 관리, 공정, 상품, 사업 파트너, 교육 또는 기술의 변경이 포함될 수 있다.

IE7 기업 Y는 IFRS S1의 '핵심요소'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기업 Y는 전략과 지표 및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IFRS S1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때, '항공' SASB 기준의 공시 주제, 지표 및 연관 세부 프로토콜을 고려한다.

IE8 기업 Y는 IFRS S1 문단 49 및 59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할 때, '항공' SASB 기준의 공시 주제와 지표를 적용하였다고 공시한다.

사례 2 - 다양한 활동을 하는 대형 복합기업(conglomerate)

- IE9 기업 A는 다양한 활동을 영위하는 대형 복합기업이다. 기업 A는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전기 및 산업 장비를 생산한다. 기업 A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외에도 SASB 기준 공시 주제를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 활동의 광범위한 성격 때문에, 기업 A는 SASB 기준이 분류된 다양한 부문을 고려하는 것으로 SASB 기준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기업 A는 헬스케어, 자원 변환 및 인프라 부문의 산업에서 활동을 수행하며, 경우에 따라 공급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생산공정의 특정 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또한, 운송 및 소비재 부문에서도 일부 활동을 하고 있다.
- IE10 기업 A는 SASB 기준의 공시 주제를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기업 A는 자신의 사업모형 및 활동에 8개의 SASB 기준이 적용가능하다고 결론 내리며, 8개 기준의 공시 주제를 고려한다. 비록 기업 A는 해당 공시 주제 모두와 연관된 사업활동을 하지만, 공시 주제 중 일부는 기업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예를 들어, 기업 A는 특정 공시 주제가 기업에 유의적이지 않은 활동과 관련되어 있어 해당 공시 주제로 특정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 IE11 기업 A는 자신이 고려한 대부분의 SASB 기준 공시 주제가 기업의 유의적인 활동에 적용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덜 유의적인 활동이 있는 일부의 경우, 기업은 그와 관련한 산업의 특정 공시 주제만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기업 A는 운송 및 소매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 고려했던 대부분의 공시 주제가 적용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기업 A는 이러한 사업에서 안전 및 노동관행과 관련된 사건들이 단기적으로는 현금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평판 위험은 중장기적인 기간범위에 걸쳐 인재 유치 및 유지 능력을 포함하여 기업의 더 큰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의 중장기적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A는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 이러한 주제들도 고려한다.

IE12 기업 A가 식별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없을 때, 기업 A는 적용가능한 공시 주제와 연관 지표를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적용가능한 지표를 식별할 때, 기업 A는 해당 지표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하고, 기업이 식별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충실하게 표현되는 정보를 제공하는지 고려한다.

IE13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할 때, 기업 A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 정보를 통합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예를 들어, 기업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장치의 중요자재를 조달하는 기업의 전략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는데, 이는 기업이 그러한 중요자재의 공급업체를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이다.

IE14 이와 대조적으로, 기업 A는 다른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의 통합이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한다고 결론 내린다. 예를 들어, 기업 A는 헬스케어 부문에서의 장비 관련 리콜 수에 대한 정보는 소비재 부문의 장비 관련 리콜 수에 대한 정보와 통합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 내리는데, 이는 각 부문별 기술, 생산 공정 및 시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부문에서 제품 리콜이 발생하는 원인 역시 다양하다.

IE15 기업 A는 IFRS S1 문단 49 및 59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할 때 적용한 SASB 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이 정보는 기업이 적용한 특정 SASB 기준, 공시 주제 및 지표의 식별을 포함한다. 또한 기업 A는 IFRS S1 문단 74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린 판단과 해당 재무공시 정보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에 대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결론도출근거

결론도출근거 목차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의 결론도출근거

	다음 문단부터
도입	BC1
개요	BC2
다른 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BC5
다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와의 관계	BC6
비례성(proportionality)	BC8
배경	BC18
글로벌 기준선, 그리고 관할권 및 규제	BC27
이니셔티브와의 상호운용성	
목적	BC35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BC42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	BC50
개념적 기반	BC63
공정한 표시	BC63
중요성	BC67
보고기업	BC85
연계된 정보	BC86
핵심요소	BC91
거버넌스	BC95
전략	BC100
위험관리	BC114
지표 및 목표	BC120

결론도출근거 목차

일반 요구사항	BC123
지침의 원천	BC125
공시의 위치	BC142
보고시기	BC145
비교정보	BC147
준수문구	BC156
판단, 불확실성 및 오류	BC158
판단	BC158
측정불확실성	BC163
오류	BC165
시행일	BC166
경과규정	BC172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요구사항'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가 IFRS S1을 개발할 때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IS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을 두고 다루었다. 또한, ISSB는 IFRS S1의 예상 원가와 효익을 설명하는 '영향분석(Effects Analysis)'도 발표하였다.

도입

BC1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이하 'IFRS S1')은 보다 일관되고, 완전하며, 비교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대한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이하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개발되었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정보가 그들이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 및 관리방안을 평가할 수 있게 해주고,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결정에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ISSB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기업의 일반목적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로 통칭함)의 정보를 보충하고 보완한다.

개요

BC2 IFRS S1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전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제공하기 위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IFRS S1은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또는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적용한다.

이러한 위험 및 기회를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라고 통칭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이하 ‘IASB’)가 발표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와 일관되게, IFRS S1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는 정보의 공시를 목적으로 한다. IFRS S1을 개발하면서, ISSB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기업에 직접적인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3 IFRS S1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해당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기업에 요구한다. IFRS S1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기업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연관된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일반적인 측면과 관련된다. IFRS S1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측면을 ‘핵심요소’라고 하며, 이는 각 정보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핵심요소에 초점을 맞춘 것은 IFRS재단 이사회(이하 ‘이사회’)가 주관한 2020년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협의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한 것이며,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이하 ‘TCFD’)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한다.

BC4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공기업을 포함한 영리기업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한다. IFRS S1은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비영리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 정보항목에 사

용된 설명에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ISSB는 공공부문 기업 및 영리기업 외 기업들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관심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ISSB는 IFRS S1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이하 'IFRS S2')와 관련하여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에 대해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이하 'IPSASB')가 진행 중인 작업에 주목하였다. ISSB는 국가 측정 제도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감독하는 규제기관 및 기타 조직이 표명한 관심에도 주목하였다.

다른 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BC5 IFRS S1은 기업의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적용한다. IFRS S1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어떠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을 적용했는지에 관계없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완하는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IFRS S1은 재무보고에서 일부 확립된 실무관행의 적용을 요구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유용하고,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보고하는 기초를 마련한다. IFRS S1은 적용가능한 경우, IASB의 '개념체계', IAS 1 '재무제표 표시' 및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와 일관된 정의와 요구사항을 사용한다. ISSB의 의도는 이러한 접근법이 IFRS 회계기준 대신에 다른 GAAP를 적용하는 기업들에게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적합성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와의 관계

BC6 IFRS S1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준수를 주장하기 위해 기업이 적용해야 하는 일반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IFRS S1은 전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필수적인 요소를 식별하고,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을 정한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다른 기준서와 IFRS S1의 요구사항을 함께 적용하게 된다(예: IFRS S2를 적용하는 기업은 정보를 어떻게 통합 또는 세분화할지 결정하기 위해 IFRS S1을 참조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IFRS S1은 미래에 ISSB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BC7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대한 IFRS S1의 목적은 IFRS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적용할 수 있는 IASB의 '개념체계', IAS 1 및 IAS 8의 목적과 유사하다.

비례성(proportionality)

BC8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의 공개초안(이하 '공개초안')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요구사항에 동의하였으나, 의견제출자 중 다수는 ISSB가 그 제안을 적용하는 전 세계 기업들의 역량 및 준비 정도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부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제안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할 수 있다.

- (1) *자원 제약* - 공시를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투자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일부 기업의 경우 비례적으로 더 높다.
- (2) *데이터 가용성* - 일부 시장, 산업 및 가치사슬의 일부에서는 고품질의 외부 데이터 가용성이 낮다.
- (3) *전문가 가용성* - 일부 기업 및 일부 시장에서는 기량 또는 전문 지식을 가용성이 낮다.

BC9 ISSB는 이러한 '비례성'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논의하였다. ISSB는 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례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결정을 내렸다.

표 1. 비례성 또는 IFRS S1의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ISSB 결정사항들의 요약

영역	비례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		경과규정	용이한 적용을 위한 추가 설명/메커니즘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개념	기량, 역량 및 자원의 고려		‘그렇게 할 수 없는’ ⁽¹⁾ 의 개념	용이한 적용을 위한 지침, 교육자료 및 기타사항
위험 및 기회의 식별	X				X
현재 재무적 영향				X	X
예상 재무적 영향	X	X		X	X
가치사슬 범위의 결정	X				X
기타 영역 - 예) 최초 연차 보고기간의 보고시기 및 비교정보 제공			X		X

(1) 공개초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이 용어는 IFRS S1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개념은 현재 재무적 영향 또는 예상 재무적 영향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 또는 그러한 영향의 추정과 관련한 측정불확실성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양적 정보의 결과가 유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통해 명확하게 설명된다.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

- BC10 높은 수준의 판단이나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요구사항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IFRS 회계기준은 기업에 측정불확실성이 높은 금액을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IFRS 9 '금융상품'은 기업이 미래전망 정보를 사용하여 기대 신용손실을 회계처리하고, 추정 과정에 기업의 판단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 BC11 IASB는 최근에 발표된 여러 IFRS 회계기준서에서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규정하여 기업이 사용하여야 하는 정보의 유형을 명시하였다. 이 개념은 IFRS 회계기준서에서 광범위한 원칙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IASB는 특정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측정불확실성을 수반하는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기업에 지침을 주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하였다.
- BC12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기업이 다음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 (1)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알려진 정보를 무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 (2)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한 IFRS S1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가진다.
 - (3)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또는 미래전망 정보(미래상황에 대한 예측 포함)와 같이 보고일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한다.
- BC13 기업은 해당 정보를 위해 광범위한 조사(exhaustive search)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정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BC14 ISSB는 IFRS S1에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라는 개념을 다음과 관련하여 도입하였다.
- (1)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IFRS S1 문단 B6(1) 참조)
 - (2) 각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기업 가치사슬의 범위(폭 및 구성 포함) 결정(IFRS S1 문단 B6(2) 참조)
 - (3)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공시의 작성(IFRS S1 문단 37(1) 참조)
- BC15 ISSB는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규정하는 것이 기업이 높은 수준의 판단이나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기업에 유익하다고 결정하였다. 이 개념은 고려해야 할 정보의 유형과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한 한도(parameters)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 BC16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규정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하지 않는다. 또한, 이것은 기업이 공시를 제공하는 것을 면제하지도 않는다. 이는 IFRS S1의 모든 요구사항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신,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준비할 때 사용하는 정보를 명확하게 하며, 특정 공시 요구사항에만 적용된다.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라는 개념은 또한 기업이 목적적합하고 적절한 정보를 사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 BC17 ISSB는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라는 개념이 IFRS 지속가

능성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는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이 특정 정보를 얻는 데 드는 원가가 더 많은 자원을 가진 다른 기업보다 비례적으로 더 큰 경우,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범위를 좁혀 조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비록 기업은 여전히 공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여 공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ISSB는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대한 정보의 유용성이 이용자에게 클수록, 그 정보를 얻기 위해 기업이 들이는 노력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라는 개념은 모든 기업이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IFRS S1과 IFRS S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배경

BC18 2021년 3월, 이사회는 ISSB에 권고사항을 제공할 목적으로, IFRS 재단(이하 '재단')이 의장을 맡는 실무준비작업그룹(Technical Readiness Working Group)(이하, 'TRWG')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보고 이니셔티브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TRWG는 다음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었다.

- (1) 기후공시기준위원회(Climature Disclosure Standards Board)(이하 'CDSB')
- (2) 다음을 포함하는 가치보고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
 - (가)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이하 'SASB')
 - (나) 국제통합보고위원회(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3) IASB

(4) TCFD

(5)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특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지표 이니셔티브(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Initiative)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이하 'IOSCO')와 IPSASB는 공식 참관인으로 참여하였다.

BC19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TRWG의 연구는 2021년 11월 재단의 웹사이트에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의 시안(prototype) 기준으로 발표되었다. 이 기준은 재단의 공식적인 정규절차나 TRWG 회원의 정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BC20 ISSB의 설립은 2021년 11월 이사회에 의해 발표되었다. ISSB의 초기 업무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사회는 ISSB가 정족수를 갖추기 전, 스태프들과 협력하여 시안 기준을 기반으로 공개초안을 발행할 수 있도록 ISSB 위원장인 엠마뉴엘 파베르(Emmanuel Faber)와 부위원장인 수잔 로이드(Suzanne Lloyd)에게 임시방편으로 특별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같은 결정은 2021년 11월에 발표된 IFRS재단 정관의 문단 56과 일관된다. 이사회의 정규절차감독위원회(Due Process Oversight Committee)(이하 'DPOC')는 ISSB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이러한 권리를 감독하였다. DPOC는 2022년 3월 21일 회의를 통해 ISSB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개초안을 발표하는 데 이의가 없음을 확정하였다.

BC21 2022년 3월, ISSB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TRWG에 의해 개발된 시안 기준을 기반으로 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 공개초안은, 이미 광범위한 공개 협의와 재심의를 거친 기준제정기구와 프레임워크 제공자의 작업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BC22 ISSB는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으로 735건의 외부검토의견서와 설문조사 응답을 받았다. 의견제출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이해관계자와 지리적 집단을 대표하였다. 작성자들이 가장 많은 수의 응답을 하였다. 또한,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들은 공개초안에 높은 수준의 관심을 보였고, 유사한 협의에서 관찰된 응답률에 비해 매우 높은 응답 수를 기록하였다. 이용자 응답은 투자자 단체와 같은 조직뿐만 아니라, 개별 이용자들에게서도 받았다. 또한 ISSB는 2022년 7월에 협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328회의 개별 및 단체 행사를 진행하였다. 추가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이해관계자들과 143회의 개별 및 단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BC23 의견제출자들은 고품질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과 프레임워크를 통합하는 계획을 환영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피드백도 있었다.

- (1)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의 적시 발행을 환영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ISSB가 IFRS S1과 IFRS S2를 발행하는데 있어 계속해서 속도를 낼 것을 장려했으며,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적시성과 품질 모두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2)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IFRS S1의 핵심요소에 대한 요구사항의 구조로서 TCFD 권고안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 (3)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관할권의 이니셔티브 및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과의 상호운용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ISSB의 제안과 동시에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되었던 다른 기관의 여러 제안에서 상호운용성 관련 의견에 주로 집중하였다. 거의 모든 유럽의 작성자들은 보고 부담과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이하 'EFRAG')의 지속가능성 보고 제안과의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거의 모든 미국의 작성자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nited

Stat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하 ‘미국 SEC’)의 ‘투자자를 위한 기후 관련 공시 강화 및 표준화’(이하 ‘미국 SEC 기후 제안’)(the US SEC Climate Proposal)과의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유럽과 미국 이외 관할권의 많은 작성자들은 향후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요구사항과 EFRAG 또는 미국 SEC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할 경우, 요구사항의 중복과 ‘이중 보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다중 이해관계자 기준, 특히 글로벌보고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이하 ‘GRI’) 기준과의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재단과 GRI 사이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하 ‘MoU’) 체결을 환영하였고, ISSB가 GRI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을 독려했다¹⁾.

- (4)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모든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함께 적용하도록 고안된 일반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포괄적인 기준으로서의 IFRS S1의 역할을 지지하였다. 그들은 일관성 있고,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제안된 요구사항, 개념 및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5)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SSB가 제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전 세계 기업의 서로 다른 역량과 준비상태를 더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 (6)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이 제안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 지침 및 사례를 요청하였다. 또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작성자들은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요구사항의 일부 측면에 대해 더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1) IFRS재단, ‘지속가능성 공시의 연결된 접근 방식 형성을 위한 자본시장 및 다중 이해관계자 기준 조율: IFRS재단 및 GRI(IFRS Foundation and GRI to align capital market and multi-stakeholder standards to create an interconnected approach for sustainability disclosures)’, IFRS Foundation재단, 런던, IFRS재단, 2022,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2/03/ifrs-foundation-signs-agreement-with-gri/> (2023년 3월 13일 조회)

(7)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SSB와 IASB 간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의견제출자들은 목적접합한 경우에는 IFRS 회계기준과 동일한 정의 및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이해가능성, 일관성 및 연계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통합 보고를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고, IASB와 ISSB 위원장들이 통합보고프레임워크(Integrated Reporting Framework)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다²⁾.

BC24 ISSB는 재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과 일정을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재심의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법을 결정할 때도 피드백을 고려하였다. 피드백을 통해 ISSB는 다음을 식별하였다.

- (1) 좋은 평가를 받은 제안
- (2) 혼합된 피드백을 받은 제안
- (3) 과거에 발표된 지속가능성 기준 및 프레임워크에 의해 상대적으로 잘 정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안
- (4) ISSB의 향후 업무계획을 통해 더 잘 다룰 수 있는 제안

BC25 ISSB는 제안된 요구사항을 추가, 제거 또는 수정하는 제안을 포함하여 혼합된 피드백을 받은 제안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SSB는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초안의 제안을 개발할 때 의존한 정보와 다른 정보를 강조하는 제안을 고려하였다. IFRS S1과 관련하여 ISSB는 다음 사항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1) '기업가치'

2) IFRS재단, '통합 보고서-미래 경로 구체화(Integrated Reporting-articulating a future path)', IFRS재단, 런던, IFRS재단, 2022,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2/05/integrated-reporting-articulating-a-future-path/>
 (2023년 3월 13일 조회).

- (2) 요구된 보고의 폭
- (3)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
- (4)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 및 공시할 정보의 식별(다른 기준제정기구의 작업결과의 사용을 포함, 본 문서의 후반부에서 '지침의 원천'으로 통칭함)
- (5) 중요성 평가의 적용
- (6) 연계된 정보
- (7) 보고 빈도(또는 시기)
- (8) 비교정보 및 갱신된 추정값

BC26 또한, ISSB는 IFRS S1과 IFRS S2 모두와 관련된 한 가지 주제 및 한 가지 제안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1) 제안의 비례성
- (2)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현재 재무적 영향과 예상 재무적 영향

글로벌 기준선, 그리고 관할권 및 규제 이니셔티브와의 상호운용성

BC27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에 따라 국제 자본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포괄적인 글로벌 기준선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글로벌 기준선은 공시 요구사항의 포괄적인 기반으로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고안되어 비교가능하고, 비용효율적이며, 의사결정에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가능하게 한다. 관할권은 이 공통된 기준선 위에 필요한 추가 공시 요구사항을 구축할 수 있다.

BC28 IFRS S1은 기업이 운영되는 관할권의 법률이나 규제(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문서, 형식 및 구조를 명시하는 법률이나 규제 포함)과 양립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기업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함께 관할권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 허용된다. ISSB는 비교가능성을 위해 글로벌 기준선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IFRS S1은 추가 정보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지 않는 한, 그러한 추가 공시를 허용한다.

BC29 공개초안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자본시장을 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포괄적인 글로벌 기준선을 마련하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개발에 동의하고 크게 환영하였다.

BC30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강력한 메시지는 관할권의 요구사항(특히, EFRAG와 미국 SEC가 발표한 제안)과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 달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상호운용성에 대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의견에 대응하여, 재단은 여러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였으며, 여기에는 IFRS S1과 IFRS S2 및 관할권별 지속가능성 보고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중요한 전략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할권작업그룹(Jurisdictional Working Group)(이하 'JWG')의 설립이 포함되었다. 설립 당시, JWG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1) 중국 재정부(Chinese Ministry of Finance)
- (2)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EFRAG
- (3) 일본 금융청(Japanese Financial Services Agency) 및 일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of Japan)
- (4)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 (5) 미국 SEC
- (6) IOSCO(참관인으로 참여)

BC31 JWG는 글로벌 기준선과 제안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간의 상호운용성 달성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다. JWG 구성원들은 상호운용가능한 글로벌 기준이 자본시장에 필수적이

라는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관할권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체계 간의 상호운용성이 떨어지면 기업에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를 위한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의 제공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제의하였다. 또한, 구성원들은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목적적합한 정보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BC32 ISSB는 다른 이들과 협력하고, 그들에게서 배우고자 한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이사회는 2022년 5월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이하 'SSAF')의 설립을 발표하였다. SSAF 회원국들은 2022년 12월에 발표되었으며, 이는 ISSB의 공식 자문기구이다. SSAF는 관할권과 지역을 대표하는 회원국들이 ISSB의 기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전문적 의견과 전문성을 기여하는 자문 토론장이다. ISSB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환경에서 다른 주체들(MoU의 상대방인 GRI 포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BC33 또한, 공개초안에 대한 재심의과정에서 ISSB는 상호운용성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IFRS S1과 IFRS S2 관련 사안에 대해 몇 가지 결정을 내렸다. ISSB는 글로벌 기준선의 일부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였는데, 특히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른 정보 공시가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즉,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의 정보수요를 충족하도록 고안되었다는 점, 해당 공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IFRS 회계기준의 적용에서 사용되는 중요성 평가와 일관된 중요성 평가에 기반을 둔다는 점, 그리고 그 정보는 특정 관할권의 요구사항과 같은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공시된 정보와 함께 표시될 수 있지만 그 추가정보에 의해 공시 정보가 불분명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였다.

- BC34 상호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해 ISSB가 내린 기타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의 구조가 '핵심요소'라고 통칭된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TCFD 권고안과 일관된다고 확정하였다(문단 BC91~BC122 참조).
 - (2) IFRS S1의 목적과 중요성 평가에 대한 설명에서 '기업가치'의 정의와 '기업가치 평가'라는 단어를 삭제하였다(문단 BC35~BC41과 BC67~BC74 참조).
 - (3) 단기, 중기 및 장기 기간범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그 기간범위는 정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였다(문단 BC102 참조).
 - (4)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가치사슬'의 정의를 확정하였다(문단 BC52~BC55 참조).
 - (5)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제공할 정보를 식별할 때, GRI 기준 및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이하 'ESRS')을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즉, 고려하는 것이 필수는 아님) 요구사항을 도입하였다(문단 BC136~BC139 참조).

목적

- BC35 IFRS S1의 목적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유용한 기업의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공개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의 일부 근본적인 개념의 적용에 대해 혼합된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이 피드백은 주로 '기업가치', '중요성', '유의적인'이라는 용어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이러한 용어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BC36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기업가치’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다른 일부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중요한 정보의 기반을 제시함에 있어 ‘기업가치’가 적절한 용어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ISSB는 재무보고와 재무공시의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포착하기 위한 의도로 공개초안에 ‘기업가치’라는 용어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기업의 현재 재무상태 및 성과를 넘어 확장될 것이며,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예상 재무적 영향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 용어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의사결정에 더 유용한 정보만을 포함하도록 공시의 범위를 좁히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ISSB의 의도와는 달리, 이 용어의 사용은 공개초안의 목적을 제한하고 일부 의견제출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이용자들은 ‘기업가치’가 너무 제한적으로 정의되거나 이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IFRS S1에 따라 공시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이용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데 유용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기업가치’의 정의에 있어 시가총액의 참조는 이 용어가 상장기업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게 하여 많은 의견제출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 용어가 유럽 법률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 쓰이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용어의 사용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BC37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에서 중요성의 개념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IASB ‘개념체계’의 문구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공개초안은 ‘개념체계’의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정의를 조정하여, 공개초안 문단 2에 ‘중요성 평가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중요성에 대한 추가 논의사항은 문단 BC67~BC84를 참조한다.

- BC38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결정하기 위해 '유의적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이 용어의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중요성과의 관계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였다.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이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답하였고,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유의적인'과 '중요한'이라는 용어의 구분이 공개초안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 BC39 ISSB는 피드백에 대한 대응으로, 목적의 문구를 변경하고, IFRS S1의 중요성 정의를 IASB가 사용하는 용어와 보다 일관되게하기로 결정하였다. ISSB는 또한 IFRS S1 부록 A에 정의된 용어 목록에서 '기업가치'의 정의를 삭제하고, 기업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이 기준서에서 기술할 때, '유의적인'과 '모든 유의적인'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다.
- BC40 비록 ISSB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ISSB의 접근법과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 대한 ISSB의 초점은 변하지 않았다. ISSB는 IASB의 정의와 일관되는 '중요한 정보'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의 정의를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SSB는 IFRS S1에서 기업이 보고해야 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기술하는 데 '유의적인'이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특히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ISSB의 의도는 공개초안과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ISSB는 '유의적인'이라는 용어가 기업이 보고해야 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중요한'이라는 용어는 제공할 정보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도

록 의도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이 차이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ISSB는 IFRS S1의 부록 B에서 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BC41 ISSB는 피드백에 대한 대응으로, IFRS S1의 '목적' 부분에서 그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1)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다루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설명
- (2) 기업이 그러한 모든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일반 요구사항
- (3)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내용과 표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정하는 데 있어 IFRS S1의 역할에 대한 설명

IFRS S1의 목적은 통합보고체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일부 경우에 기준서에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BC42 지속가능성 개념은 종종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되는데, 이는 1987년에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다.³⁾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지속가능성의 정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및 UN이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고 결론지은 사안들을 식별하는 국제 정책 발표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1) 기후변화(UN기후변화협약)(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2) 생물다양성(생물다양성 협약)(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3) 세계 환경과 개발 위원회, 「브룬트랜드 보고서:우리 공동의 미래」, 옥스퍼드,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 1987(3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Brundtland Report: Our Common Fu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3) 해양(UN해양법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4) 사막화(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UN협약)(the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 (5) 인권(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BC43 따라서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생태계적 공동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 적용된다. 이 용어들은 또한 정의, 건강, 복지 및 보존에 대한 환경적·사회적 개념과 지구위험한계선(planetary boundaries)을 인정하는 개념을 포괄한다.

BC44 IFRS S1은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또는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중점을 둔다. 여기에는 이러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거버넌스, 전략 및 위험관리와 관련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따라서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확립된 개념과의 상관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이해하는 것은 IFRS S1과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적용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이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BC45 IFRS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과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사회, 경제 및 자연환경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설명은 의도적으로 광범위하

게 규정되었다. 더욱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그것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기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기업이 운영되는 상호의존적인 시스템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IFRS S1은 기업이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자원 및 관계에 의존하면서도, 이러한 자원과 관계에 영향을 미쳐 자원의 보존, 재생 및 개발 또는 저하 및 고갈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BC46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근원이 되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ISSB는 통합보고프레임워크의 개념을 기반으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체계 제공자와 기준 제정기구의 기존 작업에 기초하려는 ISSB의 목표에 부합한다. 통합보고프레임워크의 근본적인 개념은 기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가치를 창출, 보존 및 약화시켜 기업의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를 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기업이 타인을 위해 창출, 보존 또는 약화시키는 가치와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BC47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개념은 IASB의 공개초안 '경영진설명서'의 개념 및 지침과 전반적으로 일관된다. 예를 들어, 공개초안 '경영진설명서'에서는 기업의 활동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를 향상시키거나 보존한다면, 그 활동은 기업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기업의 활동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를 감소시킨다면, 그 활동은 기업의 가치를 약화시킨다고 설명한다. 또한, 가치창출은 현금흐름창출의 선결조건이지만, 반대로 일부 활동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현금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BC48 ISSB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그리고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기초가 되는 개념에 대해 '목적' 부분(IFRS S1 문단 1~3

참조)과 적용지침(IFRS S1 문단 B1~B12 참조)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SSB는 '주요이용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관련 정의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49 ISSB는 IFRS S1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의 정보수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업의 기여에 중점을 둔 더 광범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대상 보고와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ISSB는 투자자 중심 공시를 넘어설 만큼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라 작성된 공시는 사람, 환경 및 경제에 대한 기업의 유의적인 임팩트(impact)에 대한 보고를 개념적 및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IFRS S1은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에 중점을 둔다.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

BC50 ISSB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기초가 되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IFRS S1에서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개선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포함)를 작성자가 식별하는 것을 돕기 위한 여러 접근법 중 하나였다. ISSB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접근법에도 주목하였는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특정된 IFRS S2의 요구사항 및 지침
- (2)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다양한 범위의 지속가능성 관련 문제 및 특정 산업과 관련한 위험 및 기회 포함)를 식별하기 위한 실무지침을 제공하는 IFRS S1 지침의 원천
- (3)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및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ISSB의 현재 및 향후 작업

BC51 IFRS S1 문단 3에서는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SSB에 제출된 피드백에서 작성자들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다루는 데 필요한 폭 넓은 평가 등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ISSB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 과거사건, 현재 상황 및 미래 상황 예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한다는 개념을 도입하였다(문단 BC10~BC17 참조). ISSB는 이 개념의 도입에 따라 다음이 명확해진다고 판단하였다.

- (1) 기업이 뒷받침될 수 없거나 불합리한 정보를 전제로 기회(또는 위험)를 과대하게 기술(overstating)하거나 과소하게 기술(understating)하는 것이 금지된다.
- (2) 기업은 보고일에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과거사건, 현재 상황 및 미래 상황 예측에 대한 정보 포함)를 사용해야 한다.
- (3) 기업이 보고일에 이용할 수 없었던 정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 (4) 기업은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이러한 광범위한 조사가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BC52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는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기회를 포함한다. IFRS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영향 및 예상 영향에 대한 설명을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기업의 사업모

형과 가치사슬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대한 설명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유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음료 회사는 특히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의 물 사용과 연관된 위험을 공시해야 할 수 있다. 기업은 물 사용이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으며, 기업의 물 소비가 동일한 수원(source of water)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장 주변에 위치한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물의 과다 소비가 어떻게 평판 손상 및 고객 손실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또는 자원 사용에 대한 세금부과나 사용 제한 조치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위험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
- (2) 의류 브랜드 회사는 자사의 제품과 포장에 자원 소모가 적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기회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 영향은 지속가능한 사업 관행에 대한 기업의 약속에서 발생하거나 보다 지속가능하거나 재활용하기 쉬운 대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이러한 기회에 의해 잠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치사슬 및 사업 영역을 공시하고, 기회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갖추고 있는 프로세스를 공시할 수 있다.
- (3)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공급망 내에서의 인권문제 위험을 설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평판 훼손 및 공급망 중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정책에 미치는 영향, 해당 위험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취한 조치, 식별된 인권남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BC53 재심의과정에서, ISSB는 ‘가치사슬’의 정의가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정의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확정하였다. ISSB는 ‘가치사슬’

및 '사업모형'의 정의를 IFRS S1의 '목적' 부분과 일치되도록 세부적인 편집상 변경을 수행하였다.

- BC54 공동기업, 관계기업 및 투자는 연결재무제표상 인식되지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고기업의 일부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재무제표가 이러한 투자를 인식하고,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성과에 대한 측면을 보고하는 것과 같은 방식일 때, 이러한 투자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기업의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을 평가할 때 목적적합하다.
- BC55 IFRS S1은 공동기업, 관계기업 및 투자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어떻게 포함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IFRS S2를 포함한 특정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의 공시와 관련된 요구사항 및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 BC56 기업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각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기업 가치사슬의 범위(폭 및 구성 포함)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사업모형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현재 영향과 예상 영향을 공시하고, 이러한 위험 및 기회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ISSB에 제출한 피드백에서 의견제출자들은 요구되는 공시를 작성하기 위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가치사슬의 가능 범위 때문에 기업 가치사슬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BC57 공개초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가치사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보고기업이 통제하지 않거나 보고기업에 소유지분이 없는 당사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야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 중 일부는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가치사슬의 범위를 ISSB가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ISSB는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가치사슬의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고, 기업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확정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 제품의 최종 소비자는 기업의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거나 기업 공급망 내의 공급업체의 고용관행은 보고기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기업에 대한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C58 기업이 가치사슬의 범위를 평가할 때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어려움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ISSB는 가치사슬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업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각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SSB는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라는 개념은 가치사슬에 관한 공시를 작성할 때 고려하는 정보의 유형과 그러한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노력에 대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ISSB는 특히 이 개념이 다음을 명확히 한다고 보았다.

- (1) 기업은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한다.
- (2) 기업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가치사슬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3) 기업은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가치사슬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또한 가치사슬 전반의 기업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때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해 준다.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BC59 ISSB는 공개초안에서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범위를 매 보고일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은 매 보고일에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포함할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카테고리 및 기업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BC60 피드백을 논의하면서, ISSB는 이 문제가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ISSB는 기업이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각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범위를 매 보고일에 재평가하는 데 드는 원가가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만 재평가를 통해 효익을 얻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의 효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ISSB는 기업이 매 보고일에 재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BC61 그 대신에, 피드백에 대한 대응으로 ISSB는 유의적인 사건 또는 유의적인 상황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만 기업이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중 영향을 받는 모든 범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한 유의적 사건 또는 유의적인 상황의 변화는 기업이 그 사건이나 상황 변화에 관여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으며, 또는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

서의 이용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변화하여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 출장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기업이 예상하지 못했던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 기업은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포함시킬 카테고리를 재평가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제가 기업의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예: 기업의 공급망에서 식별된 물 부족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업은 그 밖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범위는 재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ISSB는 유의적인 사건 또는 유의적인 상황의 변화가 반드시 기업 가치사슬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기업의 가치사슬이 변동되지 않았더라도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범위가 변동될 수 있다고 보았다.

BC62 기업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범위를 더 자주(예: 매년) 재평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개념적 기반

공정한 표시

BC63 IFRS S1 문단 11에서는 ‘전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정한 표시는 IFRS S1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를 공시하고 이러한 위험 및 기회를 충실하게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공정한 표시는 기업이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능한 정보를 공시하고’,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구체적으로 적용가능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더라도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정보를 공시'하도록(IFRS S1 문단 15(1)~(2) 참조) 요구한다. 공정한 표시는 IFRS 회계기준에서 잘 이해되고 있는 개념이며, 그 특성은 IAS 1과 다른 GAAP에서 제시되고 있다. IFRS S1의 개념과 언어는 IAS 1에서 파생되었으며,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맥락에서 조정되었다.

BC64 ISSB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직접 적용되는 별도의 개념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IFRS S1은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며, 이는 부록 D에 명시되어 있다. 이 지침은 IFRS S1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IFRS S1을 사용하는 기업은 이를 적용해야 한다. 부록 D에 기술된 특성들은 IASB의 '개념체계'를 조정한 것이며, 일반목적재무보고서(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재무제표 모두를 포함)에 포함된 정보가 그러한 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유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지침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BC65 '개념체계'와 마찬가지로,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보강적 특성은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이다. IFRS S1은 이러한 개념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한다. 예를 들어, IFRS S1은 설명 또는 미래전망 진술 형태의 정보도 여전히 검증가능하다고 설명한다.

BC66 표현충실성은 IAS 1의 '공정한 표시' 개념의 구성요소이다. '개념체계'에 따르면,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달성하기 위해 공시 내용의 서술은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오류가 없다는 세 가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공개초안을 개발하면서, ISSB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는 주체가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하는 주체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고, IFRS 회계기준이나 '개념체계'에 익숙하지 않

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완전한 서술'을 설명하기 위해 공개초안 문단 3에서는 '오류가 없는' 대신 '정확한'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ISSB는 IFRS S1 문단 D10의 용어를 IFRS S1 문단 13에서 사용한 용어와 일관되게 하였다.

중요성

BC67 공개초안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피드백에 대응하여, ISSB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중요성 정의가 기업가치를 언급하지 않는 '개념체계'의 '중요한 정보' 및 IAS 1의 '중요한'에 대한 IASB의 정의와 일관된다고 확정하였다.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ISSB는 중요성에 대한 설명에서 '기업가치'를 삭제하고, IFRS S1에서 '기업가치'의 정의를 삭제하였다.

BC68 ISSB는 IFRS S1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ISSB는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정의를 '개념체계'의 '중요한 정보' 및 IAS 1의 '중요한'의 정의에 기초하였다. 모든 정의는 중요성 판단이 특정 보고 기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며,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보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강조한다. IFRS S1 상의 정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한정되며, 중요성 판단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IAS 1 및 IASB의 경영진설명서 공개초안 상에서 '중요한 정보'의 정의가 각각 재무제표 및 경영진설명서에 한정되어 있는 것과 일관된다. 또한, IFRS S1의 정의는 이용자가 기업이 발표하는 한 가

지 형태의 일반목적재무보고서만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개념적으로 일관된 정의를 사용하는 것은 기업이 IFRS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연계성을 용이하게 한다.

BC69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중요성 판단과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성 판단은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재무제표는 각자 특정 목표를 가지고 있고, 보고기업에 대해 다른 유형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중요성 판단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ISSB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는 자산 및 부채의 정의와 이를 인식하는 인식기준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ISSB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고려한 기간보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준비할 때 종종 더 긴 기간에 걸쳐 재무적 시사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준비할 때, 기업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상호작용의 재무적 시사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SSB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와 비교하여 다른 측정 기준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BC70 위험 심각성은 일반적으로 가능성과 영향의 관점에서 표현되며, 기회 또한 같은 관점으로 표현될 수 있다. IFRS S1에서는 중요성을 판단할 때,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잠재적으로 영향이 큰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업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1) 기업의 활동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임팩트, 환경 및 사회가 기업의 현금흐름, 자본비용 및 자금조달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
- (2) 시간 경과에 따른 가정 및 상황의 변화
- (3)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의 정보수요의 잠재적 변화

BC71 IFRS S1에서 중요한 정보의 정의는 '개념체계' 및 IAS 1과 일관된다. 그러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모든 GAAP과 함께 적용되도록 고안되었으며, 중요성의 정의가 모든 GAAP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이하 'FASB')는 재무회계개념기준서(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제 8호에서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재무보고서에서 특정 항목의 누락 또는 왜곡표시는,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그 항목의 규모가 그 항목이 포함되거나 수정됨에 따라 재무보고서에 의존하는 합리적인 사람의 판단이 바뀌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정도인 경우 중요하다.⁴⁾

BC72 또한, 중요성 개념이 다양한 관할권에서 해석, 적용 및 집행되는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IFRS S1에 정의를 포함하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기업이 동일한 단어를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는 모든 기업은 중요한 정보에 대해 동일한 정의를 사용해야 한다.

BC73 중요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 ISSB는 중요한 정보가 다른 정보(법률, 규제 또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 포함)에 의해 불분명해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ISSB는 IAS 1과 일관되는 중요한 정보의

4) 2018년 8월 개정된 FASB 재무회계개념기준서 제8호 재무보고 '개념체계' 제 3장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문단 QC11)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 8,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Chapter 3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Useful Financial Information' (paragraph QC11) as amended August 2018.) 참조

정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IAS 1의 지침에 기초하여 중요한 정보의 불분명함에 대한 지침을 IFRS S1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BC74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ISSB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정보를 눈에 띄게 하고, 법률, 규제 또는 그 밖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와 구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태깅을 사용한다.
- (2)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의해 필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단일 보고서에 함께 제시하되, 서식을 이용하여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구분한다. (예: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강조하거나, 명확한 구별을 위해 글상자 또는 음영 배경을 사용)
- (3)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와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정보를 별도로 표시한다.(예: 보고서를 여러 부분으로 분할)
- (4) 전체 정보 패키지(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 및 중요하지 않은 정보 모두)를 구분 없이 포함하는 보고서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만 제공하는 부속보고서의 두 가지 정보 세트를 제공한다.

통합 및 세분화

BC75 IAS 1의 재무제표와 관련된 통합 및 세분화의 개념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적절하게 통합되고 세분화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서도 동일하게 중

요하다. IFRS S1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서 정보를 어떻게 통합하고 세분화할지 결정할 때,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중요한 항목들을 통합함으로써' 공시의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통합 및 세분화의 원칙은 IAS 1을 기반으로 한다.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

- BC76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업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기회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우려가 두드러졌다.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정보를 공시하면, 경쟁우위에 필수적인 기업의 전략 및 계획된 행동과 연관된 너무 많은 세부사항이 드러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BC77 일부 작성자들은 기회에 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감소시키거나 다른 방식으로 상업적으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꺼릴 것이라고 말하였다.
- BC78 이에 대응하여, ISSB는 선별적 면제규정(targeted exemption)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면제되는 상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았다. IFRS S1의 면제규정은 IFRS S1 문단 B35에 기술된 제한된 상황에서,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에 대한 정보를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BC79 ISSB는 해당 면제규정은 의도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며, 기회에 대한 정보의 공시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ISSB는 이러한 결정이 위험에 대한 정보의 공시와 기회에 대한 정보의 공시 사

이에 비대칭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SSB는 많은 기업에 이러한 정보 보고가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에 대해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SSB 공개초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은 자신이 이용가능한 기회를 공유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일반적으로 위험의 공시에 대해서는 정보가 비교가능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공시를 요구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BC80 기업이 면제규정을 적용할 상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ISSB는 기업이 상업적 민감성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IFRS S1의 공시 요구사항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통합된 수준에서 공시할 수 있는지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ISSB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경쟁우위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정보를 식별하지 않고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ISSB는 정보의 통합이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BC81 ISSB는 기업이 이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생략된 정보 항목별로 기업이 적용해야 하는 추가 요구사항을 IFRS S1에 포함하였다. ISSB는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동의하였다.

- (1)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면제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ISSB는 이러한 공시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상업적 민감성 때문에 특정 정보가 생략되었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며, 어떤 정보가 생략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는 않으므로, 면제규정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 (2) 기업은 공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특정한 사유를 가져야 하지만, 이러한 사유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ISSB는 IAS 37 ‘충당

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92의 요구사항과 유사하게 정보를 생략한 사유를 공시하도록 요구할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ISSB는 기업이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한, 그 사유에 대한 유용한 공시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대신에 ISSB는 정보가 생략되었다는 것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기업이 면제규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SSB는 공시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이 그 자체만으로는 기업이 공시를 회피하는 데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3) 기업은 매 보고일에 해당 정보에 여전히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재평가해야 한다. 더 이상 면제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해당 보고일에 그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BC82 ISSB가 채택한 접근법은 IASB가 IFRS 회계기준에서 공시 면제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특정 상황에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 접근법과 대체로 일관된다. 또한, 이 접근법은 미국 SEC 기후 제안(Climute Proposal) 및 2022년 11월 발표된 EFRAG의 ESRS 1 '일반 요구사항'(ESRS 1 General requirements)[초안]과 유사하다. 재무보고에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공시는 IASB 외의 기준제정기구와 규제기관도 검토한 영역이다. 예를 들어, 호주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는 기업에 '불합리한 침해(unreasonable prejudice)'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BC83 특정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IFRS S1의 면제규정은 이미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공시,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애널리스트를 위한 브리핑 또는 그

밖의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서에 이미 포함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기업이 기회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이점을 해칠 가능성이 낮다 (즉, 그 공시가 기업이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낮다). 이 면제규정은 기회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 BC84 IFRS S1의 면제규정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에 대한 정보 공시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 면제규정은 IFRS S2의 기후 관련 기회에 대한 정보에 적용할 수 있다.

보고기업

- BC85 기업은 관련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업에 대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보고기업은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다. 보고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단기, 중기 및 장기적으로 기업의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즉,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의 경우에는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중점을 둔다.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보고기업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재무제표에 공시된 정보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연계된 정보

- BC86 IFRS S1은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다음 유형의 연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1) 정보가 관련된 항목 간의 연계(예: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연계)
 - (2) 기업이 제공하는 공시 간의 연계
 - (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내의 연계(예: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공시 간의 연계)
 - (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기업이 발행한 기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예: 관련 재무제표) 간의 연계
- BC87 연계된 정보에 대한 IFRS S1의 요구사항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기업의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포함된 다양한 공시 간의 연계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가 관련된 항목 간의 연계(예: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연계 또는 이러한 위험 및 기회와 기업의 성과 간의 연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은 또한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 및 절충(trade-off)을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환경 위험이 기업의 평판이나 운영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전 종업원 구성이나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재무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다.
- BC88 IFRS S1에서 도출하도록 고안된 연계 유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한 제약회사가 비윤리적 실험에 대한 소송에 노출되었다. 이 기업은 전략적 대응이 어떻게 재무제표상의 충당부채 인식 및 연관된 운영비용의 인식으로 이어졌는지, 혹은 이어지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할 수 있다.
 - (2)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주로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공개적으

로 발표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에너지 조달을 재생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고, 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에 투자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한다. 이 기업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자본지출 증가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설비의 손상검토를 초래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의 하락(및 변동성의 하락) 및 고객의 관련 수요 증가로 인한 수익 및 판매이윤의 증가로 이어졌는지 설명해야 할 수 있다.

- (3) 한 공급업체는 종업원 처우 및 종업원 권리 존중에 대한 기록(특히 이 영역에서 기업의 접근방식이 다수의 동료 기업보다 좋았음) 때문에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기업은 기업의 종업원 처우와 관련한 전략 및 성과가 어떻게 기업을 유리한 위치에 자리하게 하였고, 수익 증가로 이어졌는지 설명해야 할 수 있다.
- (4) 한 기업은 디젤동력 차량을 전기 차량으로 교체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기 차량으로 전환하려면, 디젤 차량에 필요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자본투자가 필요하다. 전환 계획에 따르면 각 차량은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하면 교체된다. 이 기업은 아직 차량이 손상되지 않았으며, 감가상각률이나 내용연수 추정의 변경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이 기업은 전환 계획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재무제표에 반영된 회계처리가 전환 계획과 일관된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BC89 ISSB는 일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연계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저탄소 대체재에 대한 소비자 선호의 변화로 인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전 종업원 및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FRS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 재무제표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간의 연계를 보여주는 공시를 요구한다. 예를 들

어, 그러한 연계는 환경적인 임팩트를 최소화하는 신제품 또는 잠재적 제품의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공시를 통해 보여질 수 있다. IFRS S1은 기업이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단일 추정값 또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공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어떤 경우에는 단일 추정값보다 가능한 결과의 범위가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IFRS S1 문단 38의 요구사항은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간 연계의 성격으로 인해 기업이 개별 위험 및 기회의 시사점을 분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BC90 공개초안에 대해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및 관련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데이터와 가정을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정보 항목 간의 연계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ISSB는 IFRS S1 문단 23에서 기업이 데이터와 가정을 완전히 일관되게 할 것을 의무화하는 대신 IFRS 회계기준(또는 다른 GAAP)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와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ISSB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재무제표 사이에 데이터 및 가정이 달라질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IFRS S1 문단 B42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 및 가정과 관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데이터 및 가정 사이의 유의적인 차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핵심요소

BC91 다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특정 상황에서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한, 기업은 다음을 공시해야 한다.

- (1) *거버넌스*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
- (2) *전략*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
- (3) *위험관리*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
- (4) *지표 및 목표*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 여기에는 기업이 설정한 모든 목표, 또는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모든 목표에 대한 진척도가 포함된다.

BC92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측면('핵심요소'라고 통칭함)을 포함한다. 핵심요소는 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한다. ISSB는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바 있는 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확정하였다. 이사회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2020년 협의에서, 성공을 위한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피드백은 이해관계자들이 TCFD의 작업과 조화를 이루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BC93 따라서 IFRS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가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및 관련 지표 및 목표에 대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러한 핵심요소에 초점을 맞춘 정보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는 기업이 사업을 관리함에 있어 어떻게 거버넌스를 가져가고,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고, 전략을 설정하는지를 규정하는 대신,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ISSB는 다른 관할권의 요구사항(예: ESRS)이 TCFD 권고안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공통된 기반은 IFRS 지속

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하는 기업과 다른 관할권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기업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BC94 기업은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노출되어 있다. IFRS S1은 기업이 적절한 경우 공시에서 정보를 반복하지 않고 핵심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경우, 기업은 해당 위험 및 기회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프로세스를 조정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고유한 특성(예: 더 긴 기간)에 대응하여 기업이 통합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어떻게 조정하였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한다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이러한 프로세스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2)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할 수 있다. 다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예: IFRS S2)을 적용할 때,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이 예시에서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가 기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에 통합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전반적인 접근법과는 다른, 위험 또는 기회에 대한 거버넌스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다.

거버넌스

BC95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들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 및 그 구성원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도 관심이 있다. 이러한 정보는 이사회 및 경영진과 같은 개인(들) 또는 기구(들)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심을 두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BC96 IFRS S1 문단 26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를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FRS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들) 또는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는 데 사용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에서의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의사결정기구(들)'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는 이사회, 위원회 또는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동등한 기구를 포함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감독 책임이 의사결정기구(들)가 아닌, 개인(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BC97 이러한 거버넌스 공시 요구사항은 대부분 TCFD 권고안에 기반하고 있지만, 몇 가지 추가 요구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IFRS S1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들) 혹은 개인(들)의 책임이 해당 의사결정기구(들) 및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운영규정(terms of reference), 위임권한(mandates), 직무기술서(role description) 및 기타 관련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TCFD 권고안을 보완하는 IFRS S1의 공시 요구사항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의 정보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포함된다.

BC98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감독에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들) 또는 개인(들)에 대한 정보는 기업이 이러한 기구(들) 또는 개인(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전문지식에 대한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IFRS S1은 이러한 기구(들) 또는 개인(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을 감독하기 위한 적절한 기량과 역량을 갖추었는지 또는 향후 개발될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특수한 기량과 역량의 수준은 일부 기업, 특히 소규모 기업의 이사회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많은 의사결정기구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은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기후변화와 연관된 물리적 위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런 경우, 산업 경험이가장 목적적합한 전문지식의 원천일 수 있다. IFRS S1은 기업이 취해야 하는 접근법을 규정하지 않지만, 기업이 취한 접근법과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IFRS S1을 적용하는 데 있어, 대기업보다 거버넌스 구조가 덜 복잡한 소규모기업은 그 구조를 설명할 것이다.

BC99 IFRS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들) 및 개인(들)을 비슷한 책임이 있는 경영진 수준의 직책 또는 위원회와 구분한다. 이 구분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위임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기존의 관리 및 거버넌스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역할 및 책임이 어떻게 위임되는지와 본질적으로 유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이사회(의사결정기구)는 더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감독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집행기구(경영진)는 어떻게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운영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전략

BC100 공개초안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다루는 기업의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ISSB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평가, 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공시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전략의 공시 목적에서 '다루다'를 '관리하다'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BC101 IFRS S1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BC42~BC62를 참조한다.

BC102 공개초안은 기업이 사용할 특정 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단기, 중기 및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는 공시를 제안하였다. 기간범위는 기업 특유의 개념이다. 기업이 단기, 중기 및 장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하는지는 기업이 운영되는 산업과 연관된 사업 및 투자주기를 포함한 많은 요소를 고려한 결과이다. 기업 또는 산업별 기간범위는 종종 롤링예측기간(rolling forecast horizons), 예산 기간 및 전략계획 주기와 같은 관리 프로세스로 변환된다. ISSB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는 단기, 중기 및 장기에 대한 기업별 평가의 맥락에서 가장 잘 이해된다고 결정하였다. 일부 관할권은 그들의 요구사항에서 기간범위를 정의하고 있지만, ISSB는 공개초안에서 사용한 접근법을 확정하였

고, IFRS S1에서는 기간범위를 정의하지 않았다. IFRS S1은 기업이 ‘단기’, ‘중기’ 및 ‘장기’에 사용한 기간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현재 재무적 영향 및 예상 재무적 영향

- BC103 공개초안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현재 재무적 영향)을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재무계획에 포함되는 방식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영향(예상 재무적 영향)을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은 이 제안에 대한 동의를 보여주었으나, 의견제출자들이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양적 또는 질적 정보의 유형이나, 양적 정보가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지 않았음을 시사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이 양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로 간주되는 상황이 불분명하다고 말하였다.
- BC104 IFRS S1 문단 34의 요구사항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재무제표에 보고된 정보 간의 연계를 식별하고 설명하여 관련 재무제표에 보고된 정보를 보완하거나 확장하는 정보를 생산하도록 고안되었다.
- BC105 ISSB는 정보 항목 간의 연계가 정보의 중복 없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는 재무제표 주석의 정보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현재 및 예상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공시하라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것이다. ISSB는 기업이 관련 재무제표와의 상호참조를 통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해당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IFRS S1 문단 B45~B47의 상호참조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BC106 기업이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ISSB는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이 명확해진다.

- (1) 기업이 뒷받침될 수 없거나 비합리적인 정보를 전제로 기회 또는 위험의 예상 재무적 영향을 과대하게 기술하거나 과소하게 기술하는 것은 금지된다.
- (2) 기업은 위험 및 기회의 예상 재무적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기업은 정보를 얻는 데 수반되는 원가 및 노력에 비례하는 정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3) 기업은 예상 재무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위험 및 기회의 예상 재무적 영향을 측정할 때, 기업은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 (4) 기업은 보고일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과거사건, 현재 상황 및 미래 상황 예측에 대한 정보 포함)만 이용할 수 있고, 보고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BC107 ISSB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공시를 작성할 때,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기량, 역량 및 자원의 수준에 상응하는 접근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SSB는 기업이 그러한 기량 또는 역량이 없더라도, 그것을 확보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BC108 피드백은 기업이 개별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현재 재무적 영향과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향상 가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재무적 영향은 많은 위험 또는 기회에서 발생하고, 재무제표의 여러 항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적 영향을 개별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할당(attribute)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ISSB는 기업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현재 재무적 영향이나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 (1) 그러한 영향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2) 그러한 영향을 추정하는 데 수반되는 측정불확실성의 수준이 너무 높아, 산출되는 양적 정보가 유용하지 않을 경우

BC109 BC107~BC108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기업이 양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ISSB는 IFRS 회계기준의 개념들을 참조하였다.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의 개념은 다양한 IFRS 회계기준에서 발견되며, 이 용어는 명확히 측정하여 분리할 수 있는 항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ISSB는 개별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을 정량화할 때 높은 수준의 측정불확실성이 수반되는 경우, 현재 재무적 영향과 예상 재무적 영향을 정량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IASB '개념체계'의 측정불확실성의 개념을 IFRS S1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BC110 ISSB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현재 재무적 영향이나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업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1) 양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 (2) 해당 재무적 영향에 대한 질적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해당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로 인해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관련 재무제표 내의 계정과목, 총계 및 소계의 식별을 포함한다.

- (3) 기업은 해당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와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이나 기회 그리고 기타 요인을 결합한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단, 결합된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가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C111 ISSB는 기업이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현재 재무적 영향이나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유용한 그 밖의 양적 및 질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유용하지 않은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위험 또는 기회 및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와 결합된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ISSB는 현재 재무적 영향과 예상 재무적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은 재무제표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고 보았다. 또한, ISSB는 기업이 개별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무제표에서 영향을 받는 계정과목, 소계 및 총계를 식별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은 유용하다고 보았다. 이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용하다.

BC112 ISSB는 현재 재무적 영향 및 예상 재무적 영향과 관련한 요구사항에서 사용된 일부 용어에 대한 피드백을 고려하였다. ISSB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작성되는 기간 및 해당 보고기간의 관

런 재무제표를 참조하기 위해 ‘보고기간’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SSB는 IFRS S1에서 ‘단기, 중기 및 장기’라는 문구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공개 초안에서 사용된 ‘시간이 지남에 따라’라는 용어를 대체하였다.

- BC113 ISSB는 회복력에 대한 정보의 공시 요구사항과 현재 재무적 영향 및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의 공시 요구사항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ISSB는 두 세트의 요구사항은 별개이며, 서로 다른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의 회복력에 대한 요구사항은 기업이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지속가능성 위험 및 관련 불확실성의 영향에 대처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현재 재무적 영향과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요구사항은 이러한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두 요구사항은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예상 재무적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회복력 평가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업이 회복력 평가를 수행한다면,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예상 재무적 영향을 판단하는 데 그 평가가 유용하고 목적적합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위험관리

- BC114 IFRS S1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 BC115 위험관리 공시 요구사항은 핵심요소의 네 가지 측면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TCFD 권고안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일부 변경사항

이 있다. TCFD 권고안은 위험 관련 프로세스에만 초점을 맞추는 반면, IFRS S1은 기회를 포함하도록 공시를 확장한다. 이 확장은 위험 및 기회가 동일한 불확실성의 원천에서 비롯되거나 관련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반영한다. 또한, 이는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가 점차 기회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는 위험관리의 일반적인 관행의 진화를 반영한다.

BC116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이 제안한 위험관리 공시 요구사항을 기업이 노출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위험관리 공시 요구사항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이해하도록하는 핵심요소의 전략 공시 목적과 대조된다.

BC117 IFRS S1에서 정한 요구사항은 공시 요구사항의 중복 없이 핵심요소 영역(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의 상호연관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IFRS S1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 (1) *위험관리*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 기업의 위험관리 프로세스라고 통칭되며, 이러한 위험 및 기회의 관리는 기업 전략의 일부이다.
- (2) *전략* -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기업의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현재 영향과 예상 영향,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현재 재무적 영

향과 예상 재무적 영향,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 대한 기업의 전략과 사업모형의 회복력

BC118 핵심요소 중 위험관리의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ISSB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가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 및 기회 관리 프로세스에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일반적인 전략상의 또는 운영상의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통합되어 있다고 공시하고, 그 밖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은 전반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일부가 아니며, 별도로 진행된다고 공시할 수 있다.

BC119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은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보다 더 상세하며, 이는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상대적 성숙도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위험을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업의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지표 및 목표

BC120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의 '지표 및 목표' 부분 내 목적에 대한 문구가 지표 및 목표에 대한 공시의 의도를 완전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의 이러한 피드백은 해당 공시의 목적을 기업이 이미 사용하는 지표 및 목표에 대한 공시로 한정하여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ISSB는 이러한 해석이 공시를 통해 제공되는 해당 지표들의 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지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지표를 기업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BC121 ISSB는 기업에 다음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임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 (1) (비록 기업이 그러한 지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지표를 공시한다.
- (2) (비록 그러한 지표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되지 않더라도)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측정 및 모니터링하는 데 기업이 사용하는 지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 (3) 기업이 설정한 모든 목표, 또는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모든 목표에 대한 진척도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한 기업의 성과를 공시한다. ISSB는 이러한 공시는 중요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ISSB는 이러한 목적을 명확히 한 의도가 기업이 어떻게 사업을 관리해야 하는지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는 지표 및 목표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ISSB는 기업이 특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지만, IFRS S1은 기업이 특정 목표를 설정하였거나, 또는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특정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BC122 또한, ISSB는 IFRS S1 문단 49~50에서 기업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외의 원천에서 가져왔거나 기업이 개발한 지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ISSB는 IFRS S1 문단 59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는 데 적용한 특정 기준, 발표문, 산업 실무관행 및 기타 지침의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정보에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ASB 기준 또는 기타 지침의 원천에 명시된 산업이 포함된다. ISSB는 향후 다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일반 요구사항

BC123 IFRS S1의 '일반 요구사항' 부분은 공시의 위치, 보고시기, 비교정보, 지침의 원천 및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준수 문구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BC124 IFRS S1의 일부 요구사항들은 IFRS 회계기준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원칙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 특히 IFRS 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기업에 친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적절한 경우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모든 정보가 일관되게 작성되도록 하고, 기업들이 관련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간 연계를 형성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침의 원천

BC125 IFRS S1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지침의 원천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보고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하다. 지침의 원천은 IFRS S1의 발행 시점에 특히 중요한데, 이는 ISSB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발표한 유일한 구체적 요구사항이 IFRS S2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IFRS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연관된 산업 기반 지표, 즉 기업이 포함되는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는 사업모형, 활동, 또는 그 외의 공통적인 특성과 연관된 지표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IFRS S1 문단 48 참조)하기 때문에 지침의 원천은 중요하다. 지침의 원천은 기업이 IFRS S1을 적용하는 원가를 절감하게 함으로써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지침은 특히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과거에는 보고하지 않았던 기업에 유용할 수 있다.

BC126 공개초안은 기업이 정보를 제공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결정하기 위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하는 것 외에 지침의 원천을 참조(‘고려한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개초안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없을 때는, 적절한 공시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러한 지침을 참조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접근법은 IAS 8의 유사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한다.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그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제공할 정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업이 SASB 기준, ‘물 관련 공시를 위한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 및 ‘생물다양성 관련 공시를 위한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이하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라고 통칭함)을 참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준 및 지침은 이용자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동일한 산업 또는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이 식별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초점을 맞춘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제정기구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공개초안에서는 ‘고려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업이 이러한 지침의 원천을 참조하도록 요구하였다.

BC127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에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지침의 원천에 동의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해 확립된 기준 및 프레임워크(SASB 기준 및 CDSB 프레임워크 포함)를 기반으로 하는 ISSB의 접근법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

출자들은 ‘고려한다’라는 표현은 공개초안에 열거된 모든 지침의 원천에 대한 고려를 요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기업 및 검증제공자에게 잠재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사항 대신에, 열거된 지침의 원천 일부 또는 전부를 ‘고려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고려한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기업이 이러한 지침의 원천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BC128 제안된 다른 지침의 원천에 대한 참조는 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명확한 범위에서 지침의 원천을 제공함으로써 실무상 보고의 다양성을 줄이고, 동료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와 추가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없을 때 제공될 수 있는 정보 간의 비교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참조된 지침의 원천은 기업이 IFRS S1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원천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되었다. ISSB가 추가적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개발함에 따라 기업은 IFRS S1에 참조된 지침의 원천에 의존할 필요성이 초기에 비해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보고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고안된 공시 요구사항을 앞으로의 기준들이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많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개발되더라도, 이러한 지침의 원천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그리고 그러한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제공할 정보를 식별하는 데 여전히 유용할 것이다.

BC129 피드백에 대한 대응으로, ISSB는 방대한 목록에 포함된 지침의 원천을 기업이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추가적인 효익을 보장하는지를 검토하였다. ISSB는 IFRS S1에서 기업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외에 참조하여 고려해야 하는 지침의 원천을 제한함으로써,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와 그러

한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제공할 정보를 식별하는 데 구체적으로 적용가능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없을 때 모두에 있어서, 해당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ISSB는 이러한 변경이 검증제공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BC130 산업기반 공시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중요하다는 피드백을 받아, ISSB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그러한 위험 및 기회에 대해 보고할 정보를 식별할 때, SASB 기준을 참조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근거는 SASB 기준이 IFRS S1과 유사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SASB 기준의 전반적인 설계(공시 주제 및 관련 지표)가 일반적으로 IFRS S1의 요구사항 구조, 즉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이러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지표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ISSB는 SASB 기준의 사용으로 기업의 적용 원가를 줄이고,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비교가능한 공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이용자들은 대체로 SASB 기준의 사용을 선호한다는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또한, SASB 기준의 공시 주제는 기업이 IFRS S1의 범위 내에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 이는 특히 작성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다.

BC131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논의하면서, ISSB는 기업이 특정 지침의 원천을 '고려한다'는 제안은 해당 지침의 원천을 사용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설정한 것이지, 그러한 지침의 적용을 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한 결론도출근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공개초안의 제안과 일관되게,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 SASB 기준과 CDSB 발표문을 적용하는 것은 모범 사례로 간주되지만, 그러한 발표문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에의 공식적인 요구사항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이러한 문서들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문단 91에 따라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BC132 ISSB는 지침의 원천을 ‘고려’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히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ISSB는 지침의 원천에 대한 고려가 일반적으로 기업이 갖추고 있는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업은 SASB 기준을 고려해야 하지만, SASB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기업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이용자의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충실히 표현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기업이 고려한 지침의 원천이 IFRS S1 문단 57에서 명시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공시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침의 원천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ISSB는 기업이 고려할 것으로 요구되는(‘고려한다’) 원천과 고려하는 것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허용되는(‘고려할 수 있다’) 원천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ISSB는 기업이 SASB 기준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실무에서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특히 동종 기업들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용자에게 유용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ISSB는 지침의 원천을 ‘적용’하기보다는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그러한 효익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BC133 SASB 기준은 공시 주제와 지표가 산업별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이 자신의 사업모형 및 연관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SASB 기준의 공시 주제는 해당 산업에서 기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지속가

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나타낸다. 연관 지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어떤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표를 포함하여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기업별로 다르다. 그러나 ISSB는 SASB 기준의 공시 주제 및 연관 지표가 특정 사업모형 및 관련 활동을 가진 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BC134 ISSB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 요구사항을 정하는 IFRS S1과 산업기반인 SASB 기준이 제공하는 지침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SASB 기준에서 제공하는 지침이 특정 산업 내 기업의 활동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SASB 기준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산업에서 발생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초점을 맞춘 공시 주제를 포함한다. 또한, SASB 기준의 공시 주제에 수반되는 지표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 내 기업의 활동에 맞추어 조정된다. 결과적으로, SASB 기준은 가치사슬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적용을 보완하거나 지원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그러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SASB 기준을 적용할 때, 기업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수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BC135 피드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ISSB는 'CDSB 프레임워크 적용 지침'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는 고려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ISSB는 이와 유사하게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고안된 다른 기준제정 기구의 최신 발표문 및 동일한 산업 또는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

업이 식별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기보다, 참조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SSB는 이러한 원천을 고려하도록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에 보고 부담을 증가시키고 검증제공자에게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방대한 목록에 제한 없이 포함된 지침의 원천을 기업이 고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ISSB는 기업이 이러한 원천을 참조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이미 친숙할 수 있는 원천을 사용하도록 하여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의 전환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BC136 ISSB는 공개초안에서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고안된 다른 기준제정기구의 최신 발표문을 참조할 때, 그러한 기준제정기구가 요구하는 특정 공시사항이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켰을지라도, ISSB보다 더 광범위한 업무 범위를 다루는 기준제정기구의 자료를 기업이 참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제한은 이용자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시가 제공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개초안에 포함되었다. 지침의 원천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면서, ISSB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제공할 정보(지표 포함)를 식별하기 위해 GRI 기준 및 ESRS를 고려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기업은 식별된 정보가 IFRS S1의 목적을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러한 원천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러한 원천을 고려하는 것이 허용된다. ISSB는 지침의 원천으로서 GRI 기준과 ESRS에 대한 참조를 IFRS S1의 부록에 게재하는 데 동의하였다.

BC137 ISSB는 공개초안에서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다른 기준제정기구의 최신 발표문만을 참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GRI 기준 및 ESRS를 참조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침의 원천에 대한 참조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수정된 접근법에 따르면,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한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제공할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GRI 기준 및 ESRS를 참조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를 식별할 때가 아니라 제공할 정보를 식별할 때 이러한 기준의 참조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이 공시하는 모든 정보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ASB 기준, 또는 IFRS S1 문단 55(2)에 나열된 기타 지침의 원천을 이용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되, GRI 기준이나 ESRS는 이용하지 않는다.

BC138 ISSB는 지침의 원천에서 GRI 기준 및 ESRS를 참조하는 것이 다른 지속가능성 보고 요구사항과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고, 특히 이미 GRI 기준을 이용하여 지표 또는 기타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ESRS 준수가 의무화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ISSB는 GRI와 MoU를 체결하였고, ESRS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간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및 EFRAG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두 가지 약정은 이러한 지침의 원천을 참조하는 것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하지만 SASB 기준 및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과는 달리, GRI 기준 및 ESRS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보다 더 광범위한 대상자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ISSB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공시의 일부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BC139 ISSB는 기업이 GRI 기준이나 ESRS를 사용하는 경우,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강조하였다. 기업은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할 때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지침의 원천을 적용하는 경우,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준수 사실을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다. ISSB는 기업이 GRI 기준이나 ESRs를 이용하여 식별한 정보가 IFRS S1의 목적을 충족하는지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GRI 기준이나 ESRs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단순히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BC140 공개초안은 기업이 자신이 제공한 공시에 대해 명시한 산업을 공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공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보다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 요구사항은 기업이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예: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구체적으로 적용가능한 요구사항이 없어 기업이 SASB 기준을 이용하여 공시를 작성한 경우)을 적용할 때, 기업이 내린 중요성 판단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이 요구사항에 따라 산업이 공시되면, 이용자는 기업이 해당 산업의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를 누락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BC141 재심의과정에서 ISSB는 기업이 적용가능한 지표를 식별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할 때 적용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또는 SASB 기준에 명시된 산업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개초안의 요구사항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SSB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지침의 원천을 공시(적용가능한 경우, SASB 기준의 공시 주제를 식별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개초안의 요구사항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IFRS S1은 또한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린 판단과 공시에 포함된 정보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

구한다(IFRS S1 문단 74 참조). 이러한 판단의 예시로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할 때 어떤 지침의 원천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있다. 이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기업은 자신이 고려한 특정 지침의 원천을 적용한다는 것을 공시하고, 다른 지침의 원천도 고려하였지만 그 지침의 원천은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시해야 할 수도 있다.

공시의 위치

BC142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보고기업의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일부로서 발행하도록 요구된다. 이 요구사항의 결과로, 기업은 관련 재무제표를 발행함과 동시에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보고해야 한다(다만, IFRS S1 문단 E4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경과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ISSB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포괄적이고 연계된 보고서 패키지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기업의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일부로서 발행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하던 기업들과 재무제표보다 늦게 보고서를 발행하던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는 변경사항이다.

BC143 기업보고는 관할권마다 다르지만, '일반목적재무보고서'라는 용어는 기업의 재무제표 및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IFRS S1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다. ISSB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제공되어야 할 정확한 위치를 관할권에서 명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경영진설명서 혹은 이와 유사한 보고서(이 보고서가 기업의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일부

를 구성하는 경우)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가능한 위치이다. IFRS S1은 경영진설명서가 '경영진 보고서', '경영진 논의 및 분석(MD&A)', '운영 및 재무 검토', '통합 보고서', '전략 보고서'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되거나, 이들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 BC144 IFRS S1은 기업이 IFRS S1 문단 B45~B47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보고서 간의 상호참조를 통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제공할 것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상호참조를 통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다른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가능해야 하며, 그 정보의 위치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상호참조를 허용하는 공개초안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많은 작성자들이 비용효율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반면, 많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들은 상호참조가 허용되는 조건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조건들은 IFRS S1에서 더욱 명확하게 설명되었다. ISSB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이용가능한 모든 경우에 상호참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도 이용가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정보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동일한 보고서의 일부가 아닌 경우, 기업은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보고시기

- BC145 공개초안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관련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해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에 대해 동시에 발표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의 제안에 동의하였지만,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기업들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재무제표와 동시에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보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동시 발행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및 성과에 대해 일관성 있고, 총체적이며, 연계된 그림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자본배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였다. 이 피드백을 논의하면서, ISSB는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보고하는 것이 처음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ISSB는 기업이 제안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제출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였다.

- (1) 특히 적용 첫해에 보고부담이 증가하고, 평소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인식
- (2) 미개발된 보고 시스템은 지속가능성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집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
- (3) 일부 지표의 경우, 예를 들어 완성된 재무제표 혹은 제삼자 데이터 제공업체의 정보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어 계산이 지연될 수 있음
- (4) 관할권의 보고 요구사항이 제안된 요구사항과 일관되지 않을 수 있음
- (5) 보고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완성하기 위해 가정 및 추정치에 추가적으로 의존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BC146 재심의과정에서, ISSB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관련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에 대해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ISSB는 작성자들의 우려에 대응하여 경과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IFRS S1 문단 E4 참조).

비교정보

- BC147 IFRS S1은 보고기간에 공시된 모든 값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 사용된 문구는 IAS 1 문단 38의 요구사항에서 조정되었고, 이에 따른다. 공개초안은 모든 지표에 대해 비교정보를 공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SSB는 IFRS S1이 지표에 대한 공시로 한정하는 것보다, '모든 값'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더 유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ISSB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로 보고되는 값이,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현재 재무적 영향과 예상 재무적 영향 또는 지표 및 목표와 관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BC148 해당 정보가 보고기간의 공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면, 기업은 서술적이고 기술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대한 비교정보도 공시하도록 요구된다. 경과규정으로서, 기업은 IFRS S1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비교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IFRS S1 문단 E3 참조).
- BC149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원칙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갱신된 추정값을 반영하여 비교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혼합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의견을 제공한 대부분의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들은 갱신된 추정값을 반영하여 비교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작성자들, 회계법인 및 회계기준 제정기구 등을 포함한 다른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요구사항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다. 그들의 우려사항 중 일부는 다음과 같았다.
- (1) 제안된 요구사항은 IAS 8에 제시된 추정값의 변경에 대한 접근법과 일관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재무제표를 연계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 (2) 특정 상황에서는 추정값의 갱신과 연관된 비용과 복잡성이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
- (3) 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잠재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 (4) 제안사항은 갱신된 추정값의 반영을 위한 비교정보 수정과 오류수정의 요구사항을 각각 어떻게 구분할지와 방법에 대해 불분명하다.

BC150 비교정보의 수정에 대한 요구사항은 IFRS 회계기준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추정치 변경에 대한 접근법과 다르다. 추정치의 변경은 IFRS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변경의 영향을 받는 현재 및 미래 기간, 즉 추정치를 변경한 기간에 인식된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비교정보는 변경되지 않고 추정의 변경은 보고기간의 손익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공정가치 및 기대신용손실의 변경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이러한 추정치의 변경은 복식부기 모형의 일부이므로, 보고된 자본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서는 추정값 및 지표는 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예를 들어,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 추정값의 변경은 추정값 자체에만 영향을 미치며, 이는 ISSB가 IFRS S1에서 기업에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의 비교정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게 된 이유이다. 기업이 갱신된 추정값을 반영하기 위해 비교정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추세에 대하여 가능한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BC151 일부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는 특성상 유의적인 추정요소가 필요하다(기업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추정 포함). ISSB는 기업이 보고기간의 정보를 변경하기보다는 전기와 관련된 추정값의 변경을 반영하여 비교정보를 수정하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BC152 기업은 지표에 대해 공시한 추정값을 수정해야 하지만, 서술적이고 기술적인 공시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 이 요구사항은 변경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고, 추정값을 실무적으로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ISSB는 IFRS S1의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의 정의를 IAS 1의 정의에 기초하기로 결정하여, IFRS 회계기준과 일관된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IFRS S1은 기업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임계치를 높게 설정한다. 기업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임계치는 비용효익 임계치보다 높다.⁵⁾

BC153 ISSB는 피드백에 대한 대응으로, 비교정보의 수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ISSB는 기업이 전기에 공시된 지표의 추정값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보를 식별하고 그 정보가 전기에 존재했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기업은 새로운 정보를 고려하여 지표에 대해 수정된 비교값을 공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 해당 지표에 대해 전기에 공시된 값과 수정된 비교값의 차이를 공시하고, 비교값이 왜 수정되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BC154 ISSB는 갱신된 추정값을 반영하여 비교정보를 수정하는 요구사항에서 미래전망 지표는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미래전망 지표의 비교값을 수정하는 것이 사후판단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공시된 미래전망 지표의 비교값을 수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5) IASB는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의 일환으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의 임계치를 비용효익 임계치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였다.

BC155 ISSB는 보고기간에 기업이 지표를 재정의하거나 대체하는 경우, 기업에 요구되는 사항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표에 대한 수정된 비교값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은 지표의 변경사실과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여기에는 재정의되거나 대체된 지표가 직전 지표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준수 문구

BC156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명시적이고 제한 없는 준수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허용된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제한된 준수 문구는 금지된다. 이 요구사항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보고하는 데 있어 선택적 접근법을 취했는지, 또는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하였는지를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BC157 IFRS S1은 기업에 저탄소 경제로의 특정 전환 계획을 따르는 것과 같은 전략적 목적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기업이 설정한 모든 목표, 또는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목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기업이 일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지 않거나, 그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 자체의 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공시를 통해 그 사실을 설명한다면, 기업은 여전히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수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기업은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또는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일 수 있다.

판단, 불확실성 및 오류

판단

- BC158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특정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하고, 가정 및 추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SSB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 데 사용한 판단, 가정 및 추정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라는 피드백을 고려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정보의 검증 및 완전성 평가를 지원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BC159 IAS 1은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내린 판단으로서 재무제표에 인식한 값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준 판단을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IAS 1 문단 122~123 참조). ISSB는 이 요구사항의 원칙을 조정하여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작성 및 공시하는 과정에서 내린 판단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IFRS S1의 요구사항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BC160 ISSB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공시되는 판단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표시된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다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에서 판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이 없을 때는, IS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기업이 내린 유의적인 판단을 공시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정한다고 언급하였다.

BC161 유의적인 판단에 대한 정보 공시 요구사항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목적적합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나 산업기반 SASB 기준에 명시된 산업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개초안의 제안을 보완한다. 문단 BC140~BC14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ISSB는 해당 요구사항을 확장하여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는 데 적용한 특정 지침의 원천을 식별하도록 요구하였다. 기업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ASB 기준 또는 다른 산업기반 지침의 원천에 명시된 산업을 공시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원천을 식별하도록 요구된다.

BC162 ISSB는 다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도 판단 및 추정에 관한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ISSB는 IFRS S1의 요구사항이 다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보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측정불확실성

BC163 공개초안은 기업이 자신이 공시한 지표 중 유의적인 측정불확실성을 가진 지표를 식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유사한 IAS 1 문단 125의 요구사항을 조정하였으며, 이와 일관된다. 의견제출자들의 피드백에 따라, ISSB는 지표를 직접 측정할 수 없고 추정만 가능한 경우 외에도 측정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측정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업 자산 중 일부는 기후 관련 산불 사건으로 인해 점점 더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은 해당 자산의 손상 분석 및 측정의 일부로 고려될 것이다. 이러한 화재의 빈도와 심각성이 매우 불확실한 경우, 이용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며, 여기에는 다

음 회계연도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유의적인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포함된다.

BC164 공개초안은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를 제안할 때, 지표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ISSB는 측정불확실성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이 지표에 한정되지 않고,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보고된 다른 값(예: 현재 재무적 영향과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요구사항)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 S1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보고된 값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의적인 불확실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높은 수준의 측정불확실성의 대상이 되는 공시된 값을 식별하고, 그 값을 측정할 때 사용한 가정, 근삿값 및 판단에 대한 정보도 식별한다. 이 요구사항은 IAS 1의 문단 125에 기초하며, 이와 일관된다.

오류

BC165 ISSB는 비교값을 수정(예: 지표의 추정값을 갱신하거나 지표를 재정의)하는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과 오류로 인한 값의 재작성에 대한 요구사항의 구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과거기간의 오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에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이다. 보고기간 중에 발견한 해당 보고기간의 잠재적 오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발행승인일 전에 수정한다. 그러나 간혹 중요한 오류가 후속기간까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ISSB는 과거기간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서 중요한 오류를 식별한 경우, 다음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확정하였다.

- (1) 전기오류의 내용
- (2)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수정사항

- (3) 실무적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오류수정의 적용방법과 적용한 시기에 관한 내용

시행일

- BC166 IFRS S1의 시행일을 결정할 때, ISSB는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고려하였다.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시행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1)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FRS S1을 가능한 빨리 또는 발표 후 1년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2)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발표 후 2년 이상의 기간을 둔 시행일을 제안하였다.
 - (3)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발표 후 3년 이상의 기간을 둔 시행일을 제안하였다.
- BC167 일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들은 제안된 요구사항이 이미 잘 확립된 기준 및 프레임워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IFRS S1 및 IFRS S2의 시행일을 발표 후 12개월 이내로 요청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가 EFRAG 및 미국 SEC가 개발한 유사한 제안을 고려하였을 때,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대한 글로벌 기준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
- BC168 IASB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준서 발표와 시행일 사이에 12~18개월의 기간을 허용하는 관행이 있었다. ISSB는 IASB의 초기 기준 제정작업에서는 새로운 IFRS 회계기준의 발표와 그 시행일 사이의 기간이 6~12개월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IASB의 가장 최근 IFRS 회계기준의 경우, 기준의 발표와 시행일 사이에 최대 3년의 기간이 있었다.
- BC169 그러나 ISSB의 상황은 IASB와는 다르다. IASB가 새로운 IFRS 회계기준의 시행일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일자에는 IFRS 회계기준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에 적합하다. 이는 기업이 IFRS 회계기준의 계속 준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IASB가 정한 시행일 요구사항에 따라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IFRS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관할권들은 IASB가 정한 시행일과 동일한 시행일을 사용한다. 그러나 ISSB는 최초로 기준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관할권마다 최초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채택하는 시점과 후속적으로 규제기관이 기업들에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시점이 다양할 것이다.

BC170 ISSB는 IFRS S1 및 IFRS S2의 시행일을 정할 때 기업의 준비정도를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이 요구사항들은 새로운 것이며, 기업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를 작성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 프로세스 및 통제를 구축하거나 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도입기간의 길이는 기업의 규모, 적용되는 요구사항 또는 규정 등 기업의 상황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그리고 보고에 대한 기업의 현재 접근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SSB는 다른 경우보다 이른 시일에 작성자가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IFRS S1 및 IFRS S2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많은 결정을 내렸다. 예를 들어, ISSB는 경과규정을 도입하고 기업이 친숙할 수 있는 다른 지침의 원천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하는 요구사항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BC171 ISSB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및 기후 관련 재무공시에 대한 이용자들의 시급한 요구를 충족하려는 ISSB의 현재 속도와 일관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ISSB는 IFRS S1 및 IFRS S2의 조기 적용은 두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기업에만 허용된다고 결정하였다. ISSB는 기업이 이 두 기준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해야한다고 결정하였다.

경과규정

BC172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검토하면서, ISSB는 데이터의 가용성 및 작성자의 준비상태에 대한 여러 우려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ISSB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와 재무제표를 연계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경과규정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ISSB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관련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IFRS S1 문단 E4 참조). 이 경과규정은 기업이 IFRS S1 및 IFRS S2를 최초로 적용한 날부터 1년 동안 이용가능하다. ISSB는 이 경과규정이 연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단순히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2분기 또는 반기의 일반목적 중간재무보고서와 동시에 보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보고시기를 명시하는 이유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들이 언제 정보가 제공될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완화를 활용하는 기업은 최초의 회계연도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다음의 시점에 보고하는 것이 허용된다.

- (1) 2분기 또는 반기 중간보고를 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그러한 일반목적 중간재무보고서의 다음 보고와 동일한 시점
- (2) 2분기 또는 반기 중간보고를 자발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그러한 일반목적 중간재무보고서의 다음 보고와 동일한 시점(다만,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개월 이내여야 함)
- (3) 중간보고를 하도록 요구되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하지도 않는 기업의 경우,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개월 이내

- BC173 ISSB는 이 경과규정이 보고의 적시성이라는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투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갖도록 하는 것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경과규정을 도입함에 있어서, ISSB가 기업이 분기별 또는 반기별 보고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 BC174 ISSB는 IFRS S1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비교정보 공시 요구사항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이 보고기간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빨리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완화는 비교정보가 요구될 때보다 IFRS S1의 요구사항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 BC175 또한 ISSB는 기업이 IFRS S1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기업이 IFRS S2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만 공시하도록 허용하는 경과규정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공시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IFRS S1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이 IFRS S1 문단 E5~E6의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은 정보를 제공할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IFRS S2를 적용한다. 즉, 기업은 IFRS S2에서 정한대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 BC176 이러한 경과규정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은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요구된다. ISSB는 기업이 IFRS S1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이 경과규정을 사용한다면, 비교정보 제공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연장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 S1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서만 보고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비교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

(문단 BC174에 기술된 완화를 적용). IFRS S1을 적용하는 두 번째 회계연도에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이외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비교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두 번째 회계연도에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비교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BC177 ISSB는 기업이 IFRS S1 및 IFRS S2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더불어 그 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자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업은 IFRS S1에 따라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완화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경과규정의 목적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즉, 기업은 첫 번째 회계연도에서 기후 외의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하지만, ISSB는 기업이 완화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고 IFRS S1 및 IFRS S2에 따라 제공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정보에 의해 불분명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BC178 ISSB는 IFRS S1 문단 E5~E6의 경과규정이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ISSB는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IFRS S1 및 IFRS S2에 쓰인 언어 및 개념에 친숙해짐으로써 효익을 얻고, 자신의 가치사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해는 IFRS S1에 따른 더 광범위한 보고를 위한 기업의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